

10세기 고려왕조의 대외관계 기사에 대한 補完

張 東 翼*

【 차례 】

1. 머리말
2. 『고려사』 세가의 자료
3. 새로운 자료의 소재
4. 대외관계 기사의 정리
5. 맺음말 : 『고려사』 세가편의 대외관계 기사의 문제점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고려사』 세가에 수록되어 있는 소략한 초기의 대외관계 기사를 보완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의 자료를 발췌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중 주목될 수 있는 점은 『고려사』에 거의 언급이 없는 5대 10국 중에서 남중국에 위치한 吳越·南唐(齊)·閩 등과 고려왕조가 빈번하게 교섭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들을 추가한 것이다. 또 『고려사』에서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관한 여러 자료를 발굴하여 향후 고려초기의 대외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들 자료를 정리한 것을 토대로 하여 『고려사』 세가편에 수록된 초기(태조~목종) 대외관계 기사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고려사』 세가편에 수록된 대외관계 기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기사가 소략한 것은 기본적으로 七代實錄의 消盡으로 인한 것이지만, 이를 復原한 『七代實錄』(『七代事跡』)의 내용도 소략했을 가능성이 있다.

② 『고려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여타의 실록과 마찬가지로 편년체로 이루어진 것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교수

으로 추측되는 『七代實錄』을 기전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록의 내용이 크게 刪削되는 동시에 여러 編目에 분산되어 대외관계 기사가 世家編에서 누락되었을 것이다.

③ 『고려사』 世家編에는 실록 이외의 타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추측되는 대외관계의 기사의 수록에서 ‘이해(是歲)’가 缺落되어 시기의 판정 및 내용에서 오류를 범한 것이 있다. 또 같은 사실을 原資料와 비교하였을 때 차이를 보이는 점도 있고, 여러 사실이 압축되어 수록되었기에 유사한 내용은 생략되었던 것 같다.

주제어

고려왕조, 중국, 일본, 대외관계 기사, 고려사, 고려사절요, 문집, 금석문, 중국의 자료, 일본의 자료

1. 머리말

고려시대의 연구에 있어서 필수자료인 『고려사』에 대한 연구는 여러 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곧 이의 영인·번역과정에서 이루어진 해체, 편찬과정을 둘러싼 편찬자의 수사방침, 그리고 체제와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행해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 성과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작업이 추진될 필요성이 없지 않다.

먼저 『고려사』의 여러 版本에 대한 서지학적인 조사를 통해 판본에 따른 字句의 차이가 검정되어야 하겠다. 또 기왕에서 이루어진 譯註가 『고려사』의 전체 내용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려사』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을 국내외의 여러 자료를 통해 보완할 점도 있다. 또 향후의 작업에서는 이에 수록되어 있는 미세한 字句조차 편찬자가 기본소양으로 삼고 있었던 『자치통감』과 같은¹⁾ 사

1) 이 점은 『고려사절요』의 紀年이 『資治通鑑』의 紀年에 의거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凡例).

서에서 구사된 용례를 바탕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서 이 글에서는 『고려사』에 극히 소략하게 수록되어 있는 고려 초기(태조~목종) 곧 10세기 고려왕조의 대외관계 기사에 대한 보완작업을 행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110년(현종 2) 거란의 침입에 의한 七代實錄의 灰塵으로 인해 『고려사』의 가장 소략한 부분의 하나이지만, 기전체인 이 책의 여러 편목에서 보완될 자료도 있으며 현존하는 금석문을 통해 보완될 수도 있다. 또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한 대외관계 기사는²⁾ 고려 왕조와 접촉하였던 중국·일본의 자료에서 많이 찾아진다. 이들 외국의 자료는 연대기의 편찬자들도 七代實錄의 灰塵과 고려 말의 정치적인 변동으로 인해 散逸되었던 實錄을 보완하기 위해 이용하였을 것이다.

이 점은 『고려사』에 수록되어 있는 대외관계 기사에 ‘是歲’ 또는 ‘是月’로 시작하여 月建이 없거나, 日辰이 없는 기사가 많이 찾아짐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사방침에 따른 논쟁으로 인해 자료수집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이고, 자료의 구득에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외국의 여러 자료를 통해 『고려사』의 대외관계 기사를 보완하고 이 시기 대외관계의 제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부차적인 목적도 내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고려사』의 편찬에서 底本으로 사용된 실록을 제외한 어떠한 자료들이 이용되었으며, 자료의 인용에서 편찬자들이 어떠한 입장에서 자료를 다루었는지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미비한 점들은 同學의 조언을 받아 보완하도록 하겠다.

2) 『고려사』세가에 수록되어 있는 대외관계 기사는 韓·中·日의 어떠한 자료보다도 상세하지만, 七代實錄에 해당하는 太祖~穆宗의 시기는 극히 소략하여 국내외의 자료를 통해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고려사』 세가의 자료

『고려사』 세가에 수록되어 있는 10세기(918, 태조 1-1008, 목종 11) 곧 灰塵된 七代實錄의 범주에 해당하는 시기인 고려왕조 초기의 대외관계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

- 918년(태조 1) : 6. 15(丙辰) 王建이 高麗를 建國함. (대외) 관련기사 없음.
- 919년(태조 2) : 9. 19(癸未) 吳越國의 文士 僉彥規가 來投함.
- 920년(태조 3) : 관련기사 없음.
- 921년(태조 4) : 2. 7(甲子) 黑水酋長 高子羅가 來投함. 2. 15(壬申) 靺鞨의 別部인 達姑(達姑狹)의 무리가 新羅의 北邊에 침입해오자 朔州의 將帥 堅權이 大破함. 4. 29(乙酉) 黑水靺鞨의 阿於間이 來投함.
- 922년(태조 5) : 2. 一契丹이 駱駝·氈을 보내음.
- 923년(태조 6) : 6. 10(癸未) 尹質이 梁에 使臣으로 갔다가 돌아와 五百羅漢畫像을 바치며 海州 嵩山寺에 奉安함. 6. 20(癸巳) 吳越國의 朴巖이 來投함.
- 924년(태조 7) : 관련기사 없음.
- 925년(태조 8) : 9. 6(丙申) 渤海將軍 申德·大德 등이 來投함. 9. 10(庚子) 渤海의 禮部卿 大和鈞·均老 등이 民 100戶를 거느리고 來投함. 12. 29(戊子) 渤海의 冒豆干·朴漁 등이 民 1,000戶를 거느리고 來投함.
- 926년(태조 9) : 이해에 張彬을 後唐에 보냄.
- 927년(태조 10) : 10. 3. 3(甲寅) 渤海의 工部卿 吳興 등 50人·僧侶 載雄 등 60人이 來投함. 이해에 林彥을 後唐에 보냄.⁴⁾
- 928년(태조 11) : 3. 2(戊申) 渤海人 金神 등 60戶가 來投함. 7. 8(辛亥) 渤海人 大儒範이 民을 거느리고 來投함. 8. 一新羅僧 洪慶(默和尚?)이 後唐 閩府에서 大藏經을 가지고 禮成江에 이르자 王이 친히 맞이함. 9. 25(丁酉) 渤海人 隱繼宗 등이 來投함.

3) 『고려사』 세가의 卷數 및 人物의 官職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IV. 대외관계 기사의 정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됨으로 이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4) 이 기사는 고려가 後唐에 파견한 것이 아니고, 같은 해 4월 신라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던 知康州事 王逢規가 林彥을 使臣으로 後唐에 보내 朝貢하니 明宗이 中興殿에서 불러보고 禮物를 下賜하였다는 기사(『삼국사기』 본기 12, 경순왕 1년 4월)를 인용한 것이다.

- 929년(태조 12) : 6. 16(癸丑) 天竺國의 三藏法師 摩目+侯羅가 高麗에 貢. 6. 23(庚申) 渤海人 洪見 등이 船 20艘에 人物을 싣고서 來投함. 9. 10(丙子) 渤海의 正近 등 300餘人이 來投함.
- 930년(태조 13) : 관련기사 없음.
- 931년(태조 14) : 이해에 詔書를 내려 北蕃人(女真人)은 人面獸心임을 力說하고 그들이 通過하는 州鎮의 城 밖에 館舍를 세워 待接하도록 함.
- 932년(태조 15) : 이해에 大相 王仲儒를 後唐에 보내 方物을 바침.
- 933년(태조 16) : 3. 5(辛巳) 後唐이 王瓊·楊昭業을 보내와 王을 책봉하여 特進檢校太保·使持節玄菟州都督·上柱國·充大義軍使·高麗國王으로 삼음. 또 國信物로 銀器·匹段 등을 보내고, 皇后 柳氏를 河東郡夫人으로 冊封하고 三軍將吏들에게도 詔書를 내림. 이와 함께 曆書를 보내왔으므로 이때부터 天授年號를 제거하고 後唐의 年號인 長興을 사용함.
- 934년(태조 17) : 7. - 渤海國의 世子 大光顯이 數萬人을 거느리고 來投함. 12. - 渤海의 陳林 등 160人이 來附해 貢.
- 935년(태조 18) : 이해에 禮賓卿 邢順 등을 後唐에 보냄.
- 936년(태조 19) : 관련기사 없음.
- 937년(태조 20) : 이해에⁵⁾ 王規·邢順을 後晉에 보내 登極을 賀禮하게 함.
- 938년(태조 21) : 3. - 西天竺의 僧 弘梵大師 啞哩嚩日羅가 貢. 7. - 처음으로 後晉의 年號인 天福을 사용함. 이해에 渤海人 朴昇이 3,000餘戶를 거느리고 來投함.
- 939년(태조 22) : 이해에 後晉이 謝攀을 보내와 王을 책봉하여 開府儀同三司·檢校太師·玄菟州大都督·高麗國王으로 삼음.
- 940년(태조 23) : 이해에 後晉이 質子 王仁翟을 돌려보냄.
- 941년(태조 24) : 이해에 王申一을 後晉에 보내 方物을 바침.
- 942년(태조 25) : 10. - 契丹이 使臣을 보내와 駱駝 50匹을 진함.
- 943년(태조 26 : 惠宗 卽位) : 관련기사 없음.
- 944년(혜종 1) : 이해에 韓玄珪·金廉을 晉에 보내 王位繼承을 通告하고, 契丹을 破했음을 賀禮함.
- 945년(혜종 2 : 定宗 卽位) : 이해에 後晉이 范匡政·張季凝을 보내와 王을 冊封하여 使持節玄菟州都督·上柱國·充大義軍使·高麗國王으로 삼음. 또 勅書를

5) 『고려사』에는 5월 癸丑(2일)에 수록되어 있으나, 이는 '是歲'가 缺落된 것으로 추측된다.

- 내려 高麗가 賚에 바친 物品을 受領했음을 通報하고 下賜品을 보내음.
- 946년(정종 1) : 관련기사 없음.
 - 947년(정종 2) : 관련기사 없음.
 - 948년(정종 3) : 9. - 東女眞의 大匡 蘇無蓋 등이 와서 馬 700匹과 方物을 바침. 9. - 처음으로 後漢의 年號인 乾祐를 사용함.
 - 949년(정종 4 : 光宗 卽位). 관련기사 없음.
 - 950년(광종 1) : 관련기사 없음.
 - 951년(광종 2) : 12. - 처음으로 後周의 年號인 廣順을 사용함.
 - 952년(광종 3) : 이해에 徐逢을 周에 보내 方物을 바침.
 - 953년(광종 4) : 이해에 後周가 王演 · 呂繼斌을 보내와 王을 冊封하여 特進檢校 大保 · 使持節 玄菟州都督 · 充大義軍使兼御史大夫 · 高麗國王으로 삼음.
 - 954년(광종 5) : 관련기사 없음.
 - 955년(광종 6) : 이해에 王融을 後周에 보내 方物을 바치게 하고, 荀質로 하여금 卽位를 賀禮하게 함.
 - 956년(광종 7) : 이해에 後周가 薛文遇를 보내와 王을 加冊하여 開府儀同三司 · 檢校大師로 삼음. 大理評事(使) 雙冀가 薛文遇를 따라 왔다가 疾病으로 殘留함.
 - 957년(광종 8) : 관련기사 없음.
 - 958년(광종 9) : 이해에 後周가 韓彥卿 · 金彥英을 보내와 比단 數千匹을 가지고서 銅과 交易하게 함.
 - 959년(광종 10) : 봄(春)에 王兢 · 黃甫魏光을 後周에 보내 名馬 · 織成衣襖 · 弓劍을 바침. 가을(秋)에 使臣을 後周에 보내 『別序孝經』 · 『越王孝經新義』 등을 바침. 後周가 戴交를 보내음. 겨울(冬)에 使臣을 後周에 보내 銅 5萬斤 · 紫 · 白水精 各 2千顆를 바침. 이해에 後周의 淸州守 雙哲(雙冀의 父)이 回禮使 王兢을 따라오자 佐丞으로 삼음.
 - 960년(광종 11) : 관련기사 없음.
 - 961년(광종 12) : 관련기사 없음.
 - 962년(광종 13) : 겨울(冬)에 李興祐 등을 宋에 보내 方物을 바침.
 - 963년(광종 14) : 12. - 처음으로 宋의 年號인 乾德을 사용함. 이해에 宋이 冊命使 時贊을 보내왔는데, 風波를 만나 溺死한 者가 90餘人임.
 - 964년(광종 15) : 관련기사 없음.
 - 965년(광종 16) : 2. - 王輅를 宋에 보내어 方物을 바치자 太祖가 王輅를 尙書

- 左僕射·食實封3百戶로 삼음.
- 966년(광종 17) : 관련기사 없음.
 - 967년(광종 18) : 관련기사 없음.
 - 968년(광종 19) : 관련기사 없음.
 - 969년(광종 20) : 관련기사 없음.
 - 970년(광종 21) : 관련기사 없음.
 - 971년(광종 22) : 관련기사 없음.
 - 972년(광종 23) : 이해에 徐熙 등을 宋에 보내 方物을 바침.
 - 973년(광종 24) : 관련기사 없음.
 - 974년(광종 25) : 관련기사 없음.
 - 975년(광종 26 : 景宗 卽位) : 관련기사 없음.
 - 976년(경종 1) : 11. - 宋이 于延超·徐昭文을 보내와 王을 冊封하여 光祿大夫·檢校太傅·使持節玄菟州諸軍事·玄菟州都督·大順軍事·食邑3千戶로 삼음. 11. - 使臣을 宋에 보내어 宋 太宗의 卽位를 賀禮함. 이해에 金行成을 宋에 보내어 國子監에 入學하게 함.
 - 977년(경종 2) : 이해에 使臣을 宋에 보내어 良馬와 甲兵을 바침.
 - 978년(경종 3) : 4. - 宋이 張洎를 보내어 來聘함.
 - 979년(경종 4) : 6. - 宋이 王僕을 보내와 王을 冊封하여 侍中으로 삼고, 食邑一千戶를 加함. 이해에 渤海人 數萬이 來投함.
 - 980년(경종 5) : 관련기사 없음.
 - 981년(경종 6 : 成宗 卽位) : 관련기사 없음.
 - 982년(성종 1) : 이해에 侍郎 金昱을 宋에 보내어 嗣位함을 告함.
 - 983년(성종 2) : 3. 22(戊寅) 宋이 李巨原·孔維를 보내와 王을 冊封하여 光祿大夫·檢校太保·使持節玄菟州諸軍事·玄菟州都督·充大順軍事·上柱國·食邑2千戶로 삼음. 5. 9(甲子) 博士 任老成이 宋으로부터 와서 『太廟堂圖』·『太廟堂記』등을 바침.
 - 984년(성종 3) : 이해에 韓遂齡을 宋에 보내어 方物을 바치게 함.
 - 985년(성종 4) : 5. - 宋이 王著·呂文仲을 보내와 王을 加冊하고 檢校太傅로 삼고 나머지의 官爵은 以前과 같이 함.
 - 986년(성종 5) : 1. - 契丹이 厥烈을 보내와 請和함. 5. - 宋이 장차 契丹을 정벌하기 위해 韓國華를 보내와 助兵을 요구함. 王이 詔書를 받고 遷延하여서 軍

士를 내지 않자 國華가 威德으로써 달래니 비로소 군사를 내어 會合할 것을 約束함. 또 이보다 먼저 女眞이 高麗가 契丹과 연결되어 있다고 宋에 誣告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韓國華에게 사실이 아님을 辨明함.

- 987년(성종 6) : 관련기사 없음.
- 988년(성종 7) : 10. - 宋이 年號를 端拱으로 바꾸고 呂端 · 呂祐之를 보내와 王을 檢校太尉로 加冊함.
- 989년(성종 8) : 이해에 韓藺卿 · 魏德柔를 宋에 보내니 太宗이 이들에게 光祿大夫의 品階를 수여함.
- 990년(성종 9) : 6. - 宋이 柴成務 · 趙化成 등을 보내와 王을 加冊하여 推誠順化功臣食邑1千戶 · 食實封4百戶로 삼고 餘他官職은 以前과 같이 함. 이해에 兵官侍郎 韓彥恭을 宋에 보내 謝恩하게 함.
- 991년(성종 10) : 4. 21(庚寅) 韓彥恭이 宋에서 돌아와 『大藏經』481函을 바침. 이해에⁶⁾ 鴨綠江 外의 女眞을 白頭山 外로 쫓아내어 살게 함. 이해에 白思柔를 宋에 보내 佛經과 御製를 보내 준 것을 謝禮하게 함.
- 992년(성종 11) : 관련기사 없음.
- 993년(성종 12) : 5. - 西北界의 女眞이 契丹의 侵入 消息을 전하였으나, 거짓으로 판단하고 대비하지 않음. 6. 7(甲子) 宋이 劉式 · 陳靖을 보내와 王을 檢校太師 · 食邑1千戶 · 食實封4百戶로 冊封하고 다른 官爵들은 以前대로 함. 이보다 먼저 白思柔가 宋에 갔을 때 張仁詮이 國家의 秘密을 漏泄하였는데, 이때 宗이 張仁詮을 함께 보내어 容恕해주라고 함. 8. - 女眞이 契丹兵의 이르렀다고 보고함에 일이 급하게 된 것을 알고 各道에 兵馬齊正使를 分遣함. 10. - 朴良柔를 上軍使로, 徐熙를 中軍使로, 崔亮을 下軍使로 삼아 北界에 進軍하여 契丹을 막게 함. 閏10. 3(丁亥) 王이 西京에 幸次하여 安北府로 나아가다가 蕭孫寧이 蓬山郡을 攻破하니 돌아옴. 이후 蕭孫寧이 書狀을 보내 歸附를 요구하니 徐熙가 和親을 청하자 李蒙猷을 보내 和親을 요청함. 蕭孫寧이 安戎鎮을 공격하자 大道秀 · 庾方이 擊破함. 和通使 張瑩을 파견하고 이어서 徐熙를 보내어 請和하게 하니 蕭孫寧이 罷兵함. 朴良柔를 歲幣使로 삼아 契丹에 보냄.
- 994년(성종 13) : 2. - 蕭遜寧이 書狀을 보내와 兩國의 外交通路를 마련하기 위해 鴨綠江에서 安北府사이에 5城을 築造하려고 함. 2. - 처음으로 契丹의 年號

6) 『고려사』에는 10월 戊辰(3일)에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 있으나, '是歲'가 탈락되었을 것이다.

- 인 統和를 使用함. 4. -朴良柔로 하여금 表文을 가지고 契丹으로 가서 定朔을 행한다는 것을 통고하고 被虜人을 돌려보내 줄 것을 요청함. 6. -元郁을 宋에 보내 援兵을 요청하였으나, 宋이 契丹과 和議를 맺어 거절하였으므로 이로부터 宋과 絶交함. 이해에 契丹이 蕭述管·李洸 등을 보내와 慰撫함. 이해에 使臣을 契丹에 보내 妓樂을 바쳤으나 退却당함.
- 995년(성종 14) : 2. -李周禎을 契丹에 보내 方物과 鷹을 바침. 이해에 李知白을 契丹에 보내 方物을 바침. 이해에 童子 十人을 契丹에 보내 그 말을 익히게 함. 이해에 趙之遜을 契丹에 보내 請婚하니 東京留守 駙馬 蕭恒德의 딸로써 婚姻하게 함.
 - 996년(성종 15) : 3. -契丹이 張幹·蕭熟葛를 보내와 王을 冊封하여 開府儀同三司·尙書令·高麗國王으로 삼음. 王이 西郊에 나아가 壇을 쌓고 冊命을 받음. 3. -韓彦卿을 契丹에 보내 納幣하게 함.
 - 997년(성종 16 : 穆宗 卽位) : 11. -王同穎을 契丹에 보내 穆宗 卽位를 고향함. 12. -契丹이 耶律迪烈를 보내와 千秋節(成宗의 生辰)을 祝賀하니 王이 命을 맞이하고 成宗의 柩前에 고향함.
 - 998년(목종 1) : 4. -契丹이 前王(成宗)이 薨去했으므로 納幣物을 돌려 보내음.
 - 999년(목종 2) : 10. -契丹이 劉績을 보내와 王을 尙書令으로 加冊함. 10. -日本國人 道賢·彌刀 등 20戶가 來投해오자 利川郡에 編戶시킴. 10. -朱仁紹를 宋에 보냄.
 - 1000년(목종 3) : 관련기사 없음.
 - 1001년(목종 4) : 관련기사 없음.
 - 1002년(목종 5) : 관련기사 없음.
 - 1003년(목종 6) : 관련기사 없음.
 - 1004년(목종 7) : 관련기사 없음.
 - 1005년(목종 8) : 1. -東女眞이 登州에 侵入하자 將帥를 보내어 막게 함. 이해에 宋의 温州文士 周侁가 商舶을 따라와 來投하자 禮賓注簿로 임명함.
 - 1006년(목종 9). 관련기사 없음.
 - 1007년(목종 10) : 2. -契丹이 耶律延貴를 보내와 王을 加冊하여 守義保邦推誠奉聖功臣·開府儀同三司·守尙書令兼政事令·上柱國·食邑7千戶·食實封7百戶로 삼음.
 - 1008년(목종 11) : 관련기사 없음.

- 1009년(목종 12 : 顯宗 卽位) : 2. 一王日卿을 契丹에 보내어 哀를 告하고 嗣位 하였음을 알림. 4. 1(丙戌) 李有恒을 契丹에 보내 太后의 生辰을 축하함. 5. 14(戊辰) (외국사신을 접대하는) 英華館을 會同館으로 이름을 바꿈. 5. 24(戊寅) 東北의 邊鎮에 徙民된 南道民을 田里로 돌려보냄.

이상은 한반도내의 후삼국의 분립으로 인한 신라·후백제 그리고 부속도 서였으나 아직 자치적인 성격이 강한 耽羅國(濟州島)·芋陵島(鬱陵島)와의 관계를 제외한 한반도 이외의 국가 및 민족과의 관계에 대한 기록만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 내용을 통해 『고려사』 世家에 수록되어 있는 대외관계 기사의 형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①고려 초기에 해당하는 918년(태조 1)에서 1009년(목종 12)까지 92년간에 걸쳐 대외관계의 기사가 없는 해가 35년에 달하여 전체의 약 38% 정도여서, 이를 통해 이 시기의 대외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②대외관계의 기사를 件數別로 정리해보면 전체가 대략 108件으로,⁷⁾ 국가 간의 交聘이 67건(고려사신 및 賓貢學生의 來往 40, 5代·宋 사신의 來聘 15, 거란사신의 내빙 9, 여진인의 내빙 3), 外國人의 來投가 23건(발해인 14, 5代·宋人 5, 女真人 3, 日本人 1), 이민족의 침입 및 방어에 관련된 것이 7건(여진 4, 거란 3),⁸⁾ 僧侶의 내왕 3건, 그리고 중국의 年號使用 및 制度受容에 대한 것이 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일반적으로 『고려사』 세가는 국왕을 정점으로 한 핵심 지배층의 활동상을 주로 다루고 있는 데 비해 대외관계의 초기기사에서는 국가 간의 교빙·전쟁 외에도 빈공학생 및 승려들의 왕래가 기록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들에 대한 기록을 대외관계의 기사로 인정한다면 여타 금석문의 자료에서 더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는데, 이

7) 이 수치는 내용적으로 주목할 만한 의미는 없고 전체적인 형편만을 말하는 것이다.

8) 이에서 契丹의 침입에 관한 건수는 일괄되어 기록되어 있기에 내용별로 나누면 더 많아질 것이다.

를 감안한다면 다음의 '4. 대외관계 기사의 정리'항에서 많은 사례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3. 새로운 자료의 소재

1) 한국측의 자료

여러 인물에 의해 分撰되었던 紀傳體의 사서인 『고려사』의 성격상 대외관계의 기사가 世家編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세가 이외의 편목 및 編年體의 『고려사절요』에도 世家編에 수록되어 있지 못한 자료가 찾아질 가능성은 있다. 초기기사에 한정하여 볼 때 977년(경종 2) 金行成이 宋의 進士第에 選拔된 것, 986년(성종 5) 崔罕·王琳을 宋에 보내 國子監에 入學시킨 것과 이들이 6년 후에 進士及第를 받은 것⁹⁾ 등과 같은 내용이 세가편에 반영되지 못했던 사례로 들 수 있다.

또 고려시대의 사실도 부분적으로 수록하고 있는 『삼국사기』·『삼국유사』에서도 대외관계 기사를 찾을 수 있고,¹⁰⁾ 고려시기의 문집인 『보한집』·『제왕운기난고』·『익재난고』·『역옹패설』 등과 지방지인 『東都歷世諸子記』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고, 高麗墓誌銘을 집성한 업적을¹¹⁾ 통해서 중국으로부터의 投化人의 사례를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승려들의 구법활동을 위한 내왕도 불교사회였던 고려왕조에서는 중요한 대외관계 기사의 하나였을 것이지만, 유교적인 입장에서 편찬된 『고

9) 『고려사』 74, 選舉志 2, 科目2 制科, 『고려사절요』 2, 성종 5년 是歲.

10) 그 대표적인 예로 923년(태조 6) 五百羅漢畫像의 奉安, 928년(태조 11) 大藏經의 奉安(『삼국유사』 3, 前後所將舍利), 929년(태조 12) 天竺國의 三藏法師 摩日+侯羅 내왕(『삼국사기』 12) 등을 들 수 있다.

11) 金龍善, 『高麗墓誌銘集成』 4版, 한림대출판부, 2006.

려사』에 불교관계의 기사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기에 초기기사의 世家編에 3건만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지만 각종 金石文資料에 수록되어 있는 이 시기의 승려들의 비문을 통해 高僧들이 중국에 내왕한 여러 사례를 더 추가 시킬 수가 있다.

2) 중국측의 자료

고려 초기에 해당하는 중국측의 왕조는 5代10國과 北宋이며 북방민족의 왕조는 契丹(遼)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中國正史에 수록되어 있는 고려왕 조와의 외교관계기사는 극히 간략하여 그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자료로 『冊府元龜』·『五代會要』·『群書考索』·『玉海』등이 있는데, 이들에 이 시기의 한·중 양국의 관계를 총괄하여 정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冊府元龜』 965, 外臣部10, 冊封3에는 932년(後唐 長興 3, 태조 15)에서 959년(後周 顯德 6, 광종 7)까지의 책봉기사가, 권972, 外臣部17, 朝貢5에는 925년(同光 3, 태조 8)부터 959년까지의 조공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또 『五代會要』 30, 高麗에는 925년에서 959년까지의 35년간 5대의 역대 왕조와 고려 사이에 이루어진 20여차에 걸친 交聘 관계를 정리되어 있고, 『群書考索』 後集64 財賦門 貢獻 四夷方貢 高麗國에는 後唐 長興(930-933) 이래 1090년(宋 元祐 5, 선종 7)까지 고려가 송에 파견한 사신단이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玉海』 154, 朝貢 獻方物 建隆高麗來貢은 唐·5代 이래 1134년(宋 紹興 4, 인종 12)까지 고려가 송에 사신을 파견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 권154 朝貢 錫予外夷 淳化賜高麗 九經·祥符賜經文·政和賜雅樂寶尊은 後唐 長興 연간(930-933)부터 1117년(宋 政和 7, 예종 12)까지의 한·중 외교 관계를 서술한 것이다.

이들 자료는 한·중 양측의 年代記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이 많이 수록되

어 있어 자료적으로 중요성이 있으나, 이 시기에 전개된 외교 관계의 全貌를 그대로 기록한 것은 아니고 著者들이 파악한 내용만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중 양측의 외교관계를 다시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 보충적인 자료로서 五代 때의 고려에 관한 기록 4건을 수록하고 있는 『資治通鑑』, 五代 때의 고려 관계 기사가 6건이 수록되어 있는 『清異錄』, 10國의 南唐과 한반도와의 교류를 정리한 『陸氏南唐書』 高麗列傳 등이 있다. 또 959년(南唐 李璟 때, 광종 10)에 고려에 사신으로 파견된 章僚(?-?)의 견문기인 『海外使程廣記』가 인용되어 있어 당시 고려 사회의 여러 면을 살펴 보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程氏演繁露』가 있다. 그리고 고려 관계 기사 150여건, 고려·발해에 대한 간단한 기사 20여 건 중에서 고려부터 이글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1009년(목종 12, 大中祥符 2)까지의 한·중 양측의 외교관계기사는 19건을 수록하고 있는 『續資治通鑑長編』이 있다.¹²⁾ 끝으로 『宋會要輯稿』가 있는데, 이에는 고려왕조에 관한 기사가 68건 정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는 다른 사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고려 관계 기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여·송 양국 관계의 이해에 일정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글의 대상이 되는 시기에 해당하는 자료는 12건이 있다.¹³⁾

3) 일본측의 자료

고대 이래 한반도와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기에 양측의 관계는 한·중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고려사』

12) 이들 각종 책에 수록되어 있는 고려왕조에 관련된 자료에 대한 정리로는 楊渭生, 『十至十四世紀中韓關係史料匯編』(學苑出版社, 1999), 張東翼, 『宋代麗史資料集錄』(서울대출판부, 2000)이 있다.

13) 이에 수록되어 있는 고려관계 기사의 검토로는 張東翼, 『宋會要輯稿에 수록된 고려관계기사의 연구』(『한국중세사회의 제문제』, 2001)가 있다.

에는 고려전기에 이루어졌던 한·일의 외교관계에 대한 기사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¹⁴⁾ 이로 인해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려 초기의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기록은 999년(목종 2) 10월 日本國人 道要·彌刀 등 20戶가 來投해온 것 1件뿐이다. 그렇지만 일본측의 기록을 살펴보면 922년(태조 5) 後百濟王 甄萱이 일본과 외교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한 것이 찾아지고,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해인 937년(태조 20)에 高麗가 일본에 牒을 보낸 것을 기록한 『日本紀略』의 기사를 위시한 여러 자료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후 고려가 일본에 牒을 보낸 것을 기록한 939년(태조 22, 天慶 2) 및 940년의 『貞信公記抄』, 972년(광종 23, 天祿 3) 고려의 사신단이 2차에 걸쳐 對馬島에 도착했음을 기록한 『親信卿記』, 1002년(목종 5, 長保 4) 大宰府에, 2년후 因幡國에 도착한 高麗人을 기록한 『權記』, 984년(성종 3, 永觀 2) 筑前國 早良郡에, 996년(성종 15, 長德 2) 石見國에 도착한 고려인에 대한 것 및 997년(성종 16, 長德 3) 고려가 3通의 國書를 보낸 것을 기록한 『小右記』 등의 자료가 있다. 이들 자료는 고려 초기에 이루어진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4. 대외관계 기사의 정리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고려사』 세가에 수록되어 있는 기사를 바탕으로 하여 한·중·일 3국의 자료를 통해 고려초기의 대외관계의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 이 점은 고려후기에 이루어진 수많은 倭寇의 침입에 대한 기록이 일본측에 남겨져 있지 않은 것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 918년(태조 1) : [高麗] 天授 1, 6. 15(丙辰) 王建이 卽位하여 國號를 高麗로, 年號를 天授로 정함(史記12·31年表/史1/節要1/益齋亂藁9忠憲王世家). [中國] 後梁 貞明 4, 12. - 泰封의 海軍統帥 王建이 性品이 殘忍한 國王 弓裔(躬乂)를 弑害하고 自立하였다는 情報을 파악함(資治通鑑271後梁紀6均王龍德2.12. - 一條). 契丹 神冊 3, 2. 20(癸亥) 晉·吳越·高麗 등이 使臣을 보내와 貢物을 바침(遼史1·70屬國表·115高麗). 3. - 高麗·西北諸蕃이 使臣을 보내와 貢物을 바침(遼史70屬國表).
- 919년(태조 2) : [高麗] 天授 2, 9. 19(癸未) 吳越國의 文士 魯彥規가 來投함(史1). [中國] 吳 天祐(唐) 16 : 武義 1, 7. 21(丙戌) 弓裔(躬乂)가 天祐(904-907) 初 開州에서 稱王하고 國號를 泰封(大封)으로 하였던 것이 中國에 傳해졌고, 이때 高麗가 吳에 佐良尉 金立奇을 보내와 入貢함(資治通鑑270後梁紀5均王).¹⁵⁾
- 920년(태조 3) : [高麗] 天授 3, 3. - 北狄의 侵入을 防禦하기 위해 庾黔弼하여 金 北界의 鶻巖鎮에 가서 城을 쌓게 함(節要1/史92庾黔弼·82兵2鐵戍).
- 921년(태조 4) : [高麗] 太祖 天授 4, 2. 7(甲子) 黑水酋長 高子羅가 170人을 거느리고 來投함(史1). 2. 15(壬申) 靺鞨의 別部인 達姑(達姑狄)의 무리가 新羅의 北邊에 침입해오자 朔州(春川)의 將帥 堅權이 騎兵을 이끌고 大破함(史記12/史1). 4. 29(乙酉) 黑水靺鞨의 阿於間이 200人을 거느리고 來投함(史1).
- 922년(태조 5) : [高麗] 天授 5, 2. - 契丹이 駱駝·氈을 보내움(史1). [日本] 延喜 22, 6. 5 이 시기 이전에 後百濟王 甄萱의 使者인 輝岳 등이 對馬島에 도착하여 表函·方物을 전달했음. 이날 官符를 大宰府에 보내어 陪臣의 朝貢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表函·方物을 返還한다는 趣旨의 大宰府牒을 發給하였음(扶桑略記同日條·延長7.5.21條/本朝文粹12大宰府答新羅返牒).
- 923년(태조 6) : [高麗] 天授 6, 4. - 庾黔弼이 北蕃을 招諭하자 1,500名이 歸附하고 被擄人 3,000餘名을 돌려보냄(節要1/史92庾黔弼). 6. 10(癸未) 福府卿 尹質이 梁에 使臣으로 갔다가 돌아와 五百羅漢畫像을 바치매 海州 嵩山寺에 奉安함(史1/遺事3前後所將舍利).¹⁶⁾ 6. 20(癸巳) 吳越國의 文士 朴巖이 來投함

15) 『자치통감』 270, 後梁紀 5, 均王 中, 貞明 5년 7월 丙戌(21일)에는 이때 吳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泰封國의 弓裔로 되어 있으나 太祖 王建이 파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16) 『危太樸文續集』 3, 高麗海州神光寺碑에 의하면 이해의 봄에 僧侶 俊呈이 後梁에서 阿羅漢 若干軸을 구입하여 오다가 難破되었으나 箱子(櫃)가 海州에 표류되어 왔다고 하는데, 같은 기사로 추측된다.

(史1). [中國] 後唐 同光 1, 11. 18(戊午) 新羅國王 金朴英(景明王)이 使臣을 보내와 朝貢함(新五代史5唐本紀5莊宗下·74四夷附錄3新羅). 이해에 고려의 使臣 廣評侍郎 韓申一·副使 春府少卿 朴巖이 奧(新五代史74四夷附錄3高麗/高麗圖經1始封/石林燕語4).¹⁷⁾ 이때 廣評侍郎 韓申一이 떠날 때 皇帝가 林慮漿을 下賜함(清異錄下酒漿林慮漿). 또 春部少卿上柱國 朴巖이 남긴 燭에는 紅印篆文의 '光濟'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함(清異錄下器具光濟叟/說郛120下).

- 924년(태조 7) : [高麗] 天授 7, 이해에 法鏡大師 玄暉(879-941)가 中國에서 歸國하여 開京에 올라가 國師로서 待遇를 받음(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 이해에 靜眞大師 慧諶(878-956)이 谷山을 떠나 幽州·代州를 거쳐 山西省 五臺山의 文殊菩薩을 參拜하고 歸國하여 全州 喜安縣함(鳳巖寺靜眞大師圓悟塔碑). [中國] 後唐 同光 2, 1. 11(庚戌) 新羅王 金朴英(景哀王)과 그의 泉州(康州)節度使 王逢規가 各各 使臣을 보내와 朝貢함(舊五代史31唐書7莊宗紀5/新五代史5唐本紀5莊宗下). 1. -高麗使臣 韓申一에게 朝散大夫·試殿中監을, 朴巖에게 朝散郎·試秘書郎을 除授함(五代會要30高麗後唐同光4.1. -條).¹⁸⁾
- 925년(太祖 8) : [高麗] 天授 8, 9. 6(丙申) 渤海將軍 申德·大德·志元 등 500人이 來投함(史1/帝王韻紀下渤海紀). 9. 10(庚子) 渤海의 禮部卿 大和鈞·均老·司政卿 大元鈞 등이 民 100戶를 거느리고 來投함(史1/帝王韻紀下渤海紀/樸翁稗說前集1).¹⁹⁾ 12. 29(戊子) 渤海의 左首衛小將 冒豆干·檢校開國男 朴漁 등이 民 1,000戶를 거느리고 來投함(史1). [中國] 後唐 同光 3, 11. 18(丁未)²⁰⁾ 高麗國이 使臣 韋伸을 보내와 貢物을 바침(舊五代史33唐書9莊宗紀7/新五代史5唐本紀5莊宗下冊府元龜972外臣部17朝貢5). 12. -後百濟王 甄萱이 使臣을 보내와 藩臣을 稱하니 甄萱을 檢校大尉兼侍中判百濟軍事를 除授하고 以前과 같이 持節都督全·武·公等州軍事·行全州刺史·海東四面都統指揮兵馬制置等事·百濟

17) 『오대회요』 30, 高麗에는 韓申一과 朴巖이 後唐에 도착한 것이 同光 3년(925) 11월이며, 이들이 官職除授를 받은 것은 다음해 1월로 되어 있으나 잘못된 것이다. 이는 『新五代史』 4, 四夷附錄 3, 高麗에도 이해로 되어 있고, 925년 10월 고려의 使臣 韋伸이 後唐에 도착한 사실도(『책부원귀』 972, 外臣部17, 朝貢5) 있음을 보아 이해일 가능성이 높다.

18) 『오대회요』에는 同光 4년(926) 1월에 韓申一·朴巖에게 官職을 除授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들이 實際로 後唐에 到着한 것은 923년(同光 1)이기에 이때 除授한 것이 옳을 것이다.

19) 이 때 2차에 걸친 渤海人의 來投에서 『제왕운기』는 600戶가 來附하였다고 하였다.

20) 『책부원귀』에는 10월로 되어 있다.

- 王·食邑二千五百戶로 冊封함(史記50甄萱). 吳越 同光(後唐) 3, 8. 一以後 吳越王 錢鏐가 아들 元瓘에게 移讓하고 吳越國王을 自稱하면서 帝王의 格式을 갖추어 使臣을 보내어 新羅·渤海王 및 海外諸國의 君長을 冊封함(新五代史67吳越世家7錢鏐/舊五代史133世襲列傳2錢鏐). 契丹 天贊 4, 10. 22(辛巳) 高麗國이 朝貢을 바침(遼史2). 11. 20(己酉) 新羅國이 朝貢을 바침(遼史2·70屬國表).
- 926년(태조 9) : [高麗] 天授 9, 이해에 張彬을 後唐에 보냄(史1/節要1). [中國] 契丹 天顯 1, 2. 20(丁未) 高麗·濊貊 등이 朝貢을 바침(遼史2·115高麗).²¹⁾
 - 927년(태조 10) : [高麗] 天授 10, 3. 3(甲寅) 渤海의 工部卿 吳興 등 50人·僧侶 載雄 등 60人이 來投함(史1). 이해에 [中國] 後唐 天成 2, 2. 1(壬午) 新羅의 使臣 張芬이 와서 朝貢함(舊五代史38唐書14明宗紀4/新五代史6唐本紀6明宗). 3. 一 新羅의 使臣 林彦이 오(新五代史6唐本紀6明宗). 3. 一 新羅國 權知康州事 王逢規를 懷化將軍으로²²⁾ 삼음(冊府元龜976外臣部褒異3/史記12). 4. 1(辛巳) 新羅國이 使臣을 보내와 方物을 바침(舊五代史38唐書14明宗紀4). 4. 一 新羅國 康州[權知康州事 王逢規]가 使臣 林彦을 보내와 朝貢을 바침(冊府元龜972外臣部朝貢5·976外臣部褒異3/史記12).²³⁾
 - 928년(태조 11) : [高麗] 天授 11, 3. 2(戊申) 渤海人 金神 등 60戶가 來投함(史1). 7. 8(辛亥) 渤海人 大儒範이 民을 거느리고 來投함(史1). 8. 一 新羅僧 洪慶(默和尚?)이 後唐 闕府에서 大藏經 1部를 가지고 禮成江에 이르자 帝釋院에 두게 함(史1/節要1/遺事3前後所將舍利). 9. 25(丁酉) 渤海人 隱繼宗 등이 來投함(史1). [中國] 後唐 天成 3, 12. 一 高麗가 後唐에 表를 올리자 答書를 新羅에 보내는 樣式에 準하여 作成하게 함(翰苑羣書8/五代會要13翰林院天成3. 12. 2條).
 - 929년(태조 12) : [高麗] 6. 16(癸丑) 天竺國의 三藏法師 摩目+侯羅가 高麗에 오(史記12/史1). 6. 23(庚申) 渤海人 洪見 등이 船 20艘에 人物을 싣고서 來

21) 『遼史』 115, 열전 45, 二國外記, 高麗에는 天顯 2년(927)으로 되어 있으나 本紀에 의하면 天顯 1년이다.

22) 『삼국사기』에는 懷化大將軍으로 되어 있다.

23) 이해에 신라의 사신이 數次에 걸쳐 도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월 1일 新羅使臣 張芬이, 3월에 新羅 權知康州事 王逢規의 使臣 林彦이 각각 왔음을 기록한 것일 것이다. 또 3월에 王逢規를 懷化將軍으로 삼았으며, 4월 1일에 張芬을 接見하고, 같은 달에 林彦을 中興殿에서 接見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理解된다.

投함(史1). 9. 10(丙子) 渤海의 正近 등 300餘人이 來投함(史1). [中國] 後唐 天成 4. 8. 23(己未) 高麗國王 王建이 廣平侍郎 張芬(張冊, 張彬) 等 53人을²⁴⁾ 보내와 銀香獅子香爐·馬匹 등을 바침(舊五代史40唐書16明宗紀6/新五代史6唐本紀6明宗/冊府元龜972外臣部17朝貢5/五代會要30高麗). [日本] 延長 7. 1. 13 耽羅島에 往來하던 新羅의 船舶이 對馬島 下縣郡에 漂着하자, 후백제의 全州로 送還함(扶桑略記5.17條). 3. 25 全州에 파견되었던 檢非違使 秦滋景이 對馬島에 도착함. 이 시기 이전에 長岑望通·秦滋景이 全州에 到着하자 후백제 왕 견훤이 이들에게 일본과의 통교를 희망하여 또 다시 사신을 파견하려다가 이들이 도착하자 長岑望通을 남겨두고 秦滋景만 귀환시켜 통교의 의사를 전하게 하였다고 함(扶桑略記5.17條). 5. 17 후백제왕 견훤의 사신인 張彦澄 등 20인이 大宰府司 및 對馬島司에 보내는 書狀과 信物을 가지고서 對馬島에 도착함(扶桑略記). 5. 21 太政官이 大宰府에 명령서(官符)를 내려 張彦澄 등을 지급하여 귀환시키게 함(扶桑略記/異國牒狀記).²⁵⁾

- 930년(태조 13) : [高麗] 天授 13, 이해에 天竺國의 三藏法師 摩目+侯羅가 龜山寺에서 入寂함(史1太祖12.6.16條). [中國] 後唐 天成 5 : 長興 1, 6. 20(壬子) 今年 及第進士 李飛·樊吉 등 6人을 及第로 榜을 내리고(望放及第), 盧價 등 7人과 賓貢 鄭朴을²⁶⁾ 다음의 試驗에 應試하게 함(舊五代史41唐書17明宗紀7).
- 931년(태조 14) : [高麗] 天授 14, 이해에 詔書를 내려 北蕃人은 人面獸心임을 力說하고 그들이 通過하는 州鎮의 城 밖에 館舍를 세워 待接하도록 함(史2). [日本] 承平 1, 7. 10 法皇 宇다가 王室의 각종 物품(御物)을 仁和寺에 보관하였는데, 그 중에 唐·新羅·渤海의 生産物(舶載品)도 포함되어 있었음(仁和寺御室御物實錄).
- 932년(태조 15) : [高麗] 天授 15, 이해에 大相 王仲儒를 後唐에 보내 方物을 바침(史2). [中國] 後唐 長興 3, 3. 28(庚戌) 高麗國(權知國事 王建)이 大相 王儒를 보내와 朝貢을 바침(舊五代史43唐書19明宗紀9/冊府元龜972外臣部17朝貢5/五代會要30高麗/新五代史74四夷附錄3高麗/高麗圖經1始封/元豐類藁31高麗世次/玉海154朝貢獻方物建隆高麗來貢/石林燕語4/寶慶四明志6敘賦下市舶).²⁷⁾ 4. 2

24) 『오대회요』에는 52人으로 되어 있다.

25) 『異國牒狀記』에는 延喜 7년(907) 5월로 잘못되어 있다.

26) 賓貢 鄭朴은 어떠한 인물인지 알 수 없으나 신라출신의 빈공학생으로 추측된다.

27) 『책부원귀』에는 特進檢校太保·使持節女菟州都督·上柱國封高麗國王充大義軍使로 되어

(甲寅)²⁸⁾ 新羅王 金傅(敬順王)가 使臣을 보내와 方物을 바침(舊五代史43唐書19明宗紀9/新五代史6唐本紀6明宗). 5. 一 制를 내려 權知高麗國事 王建에게 特進檢校太保·使持節·玄菟州都督·充大義軍使兼御史大夫·上柱國·封高麗國王을 除授함(冊府元龜965外臣部10冊封3/五代會要30高麗/玉海154朝貢錫予外夷). 6. 3(甲寅) 權知高麗國事 王建을 檢校太保·大義軍使로 삼고, 高麗國王으로 冊封함(舊五代史43唐書19明宗紀9/新五代史6唐本紀6明宗·74四夷附錄3高麗/元豐類藁31高麗世次/寶慶四明志6級賦下市舶). 7. 8(戊子) 正殿에서 使臣을 보내 高麗國王 王建을 冊封하게 함(舊五代史43唐書19明宗紀9). 7. 一 詔勅을 내려 特進檢校太保·使持節·玄菟州都督·上柱國·高麗國王 建의 妻 河東柳氏를 河東郡夫人으로 冊封하였는데, 이는 入朝使 太相 王儒의 要請에 의한 것임(冊府元龜976外臣部20褒異3/五代會要30高麗).

- 933년(태조 16) : [高麗] 天授 16, 3, 5(辛巳) 後唐이 太僕卿 王瓊·大府少卿兼通事舍人 楊昭業 을 보내와 王을 特進檢校太保·使持節玄菟州都督·上柱國·充大義軍使·高麗國王으로 삼음. 또 國信物로 銀器·匹段 등을 보내고, 皇后 柳氏를 河東郡夫人으로 冊封하고 三軍將吏들에게도 詔書를 내림. 이와 함께 曆書를 보내 왔음으로 이때부터 天授年號를 제거하고 後唐의 年號인 長興을 사용함(史2·86表1/史記12). [中國] 後唐 長興 4, 이해에 權知國事 金溥傅가 使臣을 보내음(新五代史74四夷附錄3新羅). 吳越 長興(後唐) 4,²⁹⁾ 4. 一 後百濟(百濟國) 太僕卿 李仁旭이 到着하여 先王(錢鏐)을 致祭함(吳越備史3文穆王長興 4, 4. 一 條).
- 934년(태조 17) : [高麗] 天授 17, 7. 一 渤海國의 世子 大光顯이 數萬人을 거느리고 來投하니 이름을 王繼라고 下賜하고 白州를 지키게 함(史2·93崔承老).³⁰⁾ 12. 一 渤海의 陳林 등 160인이 來附해 옴(史2/補閑集上). [中國] 後唐 長興 5 : 應順 1 : 清泰 1, 7. 一 登州가 高麗船 1艘가 到着하여 交易(市易)하였다고 보고함(冊府元龜999外臣部44互市). 8. 一 青州가 高麗의 入貢使 金吉의 船舶이 海岸

있으나 『오대회요』의 내용이 더 적합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해의 3월과 5월은 『오대회요』에는 각각 2월과 6월로 되어 있다.

28) 『신오대사』에는 4월 庚申(8일)으로 되어 있다.

29) 이 시기에 吳越이 後唐의 年號인 長興을 使用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年號를 알 수 없어 諸資料에서도 後唐을 위시한 五代의 年號를 使用하였다.

30) 『고려사』 86, 年表와 『고려사절요』 1, 태조 8년 12월조에는 925년에 '契丹이 渤海를 滅亡시키자 渤海國 世子 大光顯이 來附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學界에서는 大光顯의 來投時期는 934년이라고 보고 있다(韓圭哲, 『渤海遺民의 高麗投化』, 『釜山史學』 33, 1997).

- 에 이르렀다고 보고함(冊府元龜972外臣部17朝貢5). 10. —靑州가 高麗가 사람을 보내와 交易(市易)하였다고 보고함(冊府元龜999外臣部44互市).
- 935년(태조 18) : [高麗] 天授 18, 이해에 禮賓卿 邢順 등을 後唐에 보냄(史2/節要2). [中國] 後唐 清泰 2. 10. —高麗國王 王建이 使臣을 보내와 方物을 바침(冊府元龜972外臣部17朝貢5). 12. —高麗가 禮賓卿 邢順 등을 보내와 來朝하고 貢物을 바침(冊府元龜972外臣部17朝貢5/五代會要30高麗).³¹⁾
吳越, 清泰(後唐) 2, 이해에 吳越國 四明山の 僧侶 子麟이 高麗·百濟·日本에 나아가 天台敎法을 전수함. 이때 高麗國王이 使臣 李仁旭 一行을 파견하여 子麟을 明州에 送還함(寶慶四明志11寺院東壽昌院/延祐四明志16在城寺院東壽昌院/佛祖統紀22四明子麟法師傳·42法運通塞志17-9清泰2年/浙江通志199仙釋2寧波府子麟). [日本] 承平 5. 12. 30 新羅人 殺害에 관련하여 守備의 強化(警固)를 명한 명령서(官符)에 捺印하고 이를 大宰府에 내림(日本紀略/西宮記臨時外記政).
 - 936년(태조 19) : [高麗] 天授 19. 9. 8(甲午) 一利川의 戰鬪에서 後百濟王 神劍의 軍隊를 擊破하고 降服을 받아 全國을 統一함. 이 戰鬪에서 黑水·鐵利 등의 靺鞨人 騎兵 9,500人도 高麗軍에 編入되어 參加함(史記50甄萱/史1·86表1/東都歷世諸子記). [中國] 後唐 清泰 3. 1. 5(乙未) 後百濟(百濟)가 使臣을 보내와 方物을 바침(舊五代史48唐書24末帝紀下/新五代史7唐本紀7廢帝). 1. —去年 12月の (高麗) 入朝使 禮賓卿 邢順에게 試將作少監를, 副使 崔遠試에게 少府監主簿를 제수함(五代會要30高麗).³²⁾ 1. —高麗가 王子大相 王規 등을 보내와 朝貢을 바침(冊府元龜972外臣部17朝貢5/五代會要30高麗). 1. 某(庚午) 王子太相 王規에게 檢校尙書右僕射를, 副使 廣評侍郎 崔儒(崔禹)에게 試將作監을, 그 以下の 隨行使節(其節級) 30餘人에게 司戈·司階를 除授함(冊府元龜976外臣部20褒異3/五代會要30高麗).³³⁾ 後晉 天福 1, 이해에 高麗의 王建이 用兵하여 新羅·百濟를 擊破하여 東夷諸國이 統一되었다고 傳해짐(資治通鑑280後晉紀1高祖天福1.12. —條/陸氏南唐書18列傳15高麗).
 - 937년(태조 20) : [高麗] 天授 20, 이해에³⁴⁾ 王規·邢順을 後晉에 보내 登極

31) 『오대회요』에는 邢順의 도착이 936년(清泰 3) 12월로 되어 있으나 이해가 옳을 듯하다.

32) 『오대회요』에는 邢順 등에 대한 관직의 제수는 937년(清泰 4) 1월로 되어 있으나 이해가 옳을 듯하다.

33) 『자치통감』에는 1월 庚午로 되어 있으나 이달에는 庚午가 없고, 또 『오대회요』에는 崔儒를 崔禹로 달리 表記하고 있다.

34) 『고려사』에는 5월 癸丑(2일)에 수록되어 있으나, 이는 '是歲가 缺落된 것으로 추측된다.

- 을 賀禮하게 함(史2/節要2). [中國] 契丹 天顯 12, 9, 22(辛未) 高麗·鐵驪에 使臣을 보냄(遼史3). [日本] 承平 7, 8, 5 高麗가 보낸 牒을 일본의 左·右大臣이하 公卿들이 閱覽함(日本紀略).
- 938년(태조 21) : [高麗] 天授 21, 3. - 西天竺의 僧 弘梵大師 啞哩嚩日羅가 음(史2/節要1/圓空國師勝妙塔碑). 6. - 入吳越國使 張訓 등이 돌아와 吳의 李曰+ 弁이 皇帝位에 即位하였음을 報告함(陸氏南唐書18列傳15高麗列傳). 7. - 처음으로 後晉의 年號인 天福을 사용함(史2·86表1/節要1). 이해에 渤海人 朴昇이 3,000餘戶를 거느리고 來投함(史2). [中國] 後晉 天福 3, 8, 24(戊戌) 青州節度使 王建立이 高麗國 宿衛質子 王仁翬이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報告하자 이를 許諾함(舊五代史77晉書3高祖紀3/五代會要30高麗). 齊(南唐) 昇元 2, 6. - 高麗使臣 正朝·廣評侍郎 柳勳律이 來朝하여 貢物을 바침(陸氏南唐書1本紀1烈祖·18列傳15高麗列傳). 10. 10(癸未) 新羅使臣이³⁵⁾ 來朝하여 貢物을 바침(陸氏南唐書1本紀1烈祖). 吳越, 天福(後晉) 3, 이해에 天台山 平田寺에 머물고 있던 新羅僧 道育이 入寂함(宋高僧傳23遺身篇7晉天台山平田寺道育傳/浙江通志200仙釋3台州府道育).
 - 939년(태조 22) : [高麗] 天授 22, 이해에 後晉이 國子博士 謝攀을 보내와 王을 開府儀同三司·檢校太師·玄菟州大都督·高麗國王으로 삼음(史2/節要1/益齋亂葉9忠憲王世家). 지금까지 使用하던 後唐의 年號인 清泰 6年을 後晉의 年號인 天福 4年으로 바꿈(東都歷世諸子記).³⁶⁾ [中國] 後晉 天福 4, 9, 18(丙戌) 高麗王 王建이 廣評侍郎 邢順 等 92人을³⁷⁾ 보내와 方物을 바침(舊五代史78晉書4高祖紀4/新五代史8晉本紀8高祖/冊府元龜972外臣部17朝貢5/五代會要30高麗). 南唐 昇元 3, 이해에 高麗가 다시 廣評侍郎 柳勳律을 보내와 方物을 바침(陸氏南唐書18列傳15高麗列傳). 契丹 會同 2, 1, 3(乙巳) 後晉으로부터 尊號를 받았음을 南唐·高麗에 使臣을 보내 전함(遼史4·115高麗). [日本] 天慶 2, 2, 15 攝政 藤原忠平이 고려의 牒을 左少辨藏人 大江朝綱에게 보냄(眞信公記抄). 3, 11 大宰府가 고려의 廣評省에 보내는 答書(返牒)와 함께 사신단을 돌려보냄

35) 新羅는 이미 2년 전에 高麗에 歸附하였으므로, 이는 어떤 錯誤에 의한 것일 것이다.

36) 『東都歷世諸子記』의 原文에는“清泰六年己亥改天福始行高麗國號”로 되어 있다. 이는 “清泰 6年(己亥) 後唐의 年號인 清泰를 後晉의 年號인 天福으로 바꾸고 비로소 高麗라는 國號를 사용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서 ‘始行高麗國號’는 ‘高句麗’라는 國號를 ‘高麗’로 改稱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없다.

37) 『오대회요』에는 72人으로 되어 있다.

(日本紀略/帥記承曆4.潤8.5條・25條).

- 940년(태조 23) : [高麗] 天授 23. 봄[春]에 眞觀禪師 釋超(912-964)가 錢塘의 龍冊寺에 건너가 佛法을 배움(智谷寺眞觀禪師悟空塔碑). 이해에 後晉이 質子 王仁翟을 돌려보냄(史2). [中國] 南唐 昇元 4. 10. 27(己未) 高麗使臣 廣評侍郎 柳兢質이 來朝하여 方物을 바침(陸氏南唐書1本紀1烈祖). [日本] 天慶 3. 6. 21 左大辨 藤原元方이 攝政 藤原忠平에게 高麗牒 및 大宰府의 報告書 [解文] 등을 가져옴. 23일 忠平이 이를 左中辨 藤原在衡을 통해 大江朝綱 및 大江維時에게 보내 先例를 조사하여 자신들의 의견서[勸文]를 제출하도록 명함. 24일 在衡이 朝綱 및 維時가 자신들의 의견서[勸文]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忠平에게 전함(貞信公記抄/帥記承曆4.潤8.5條・25條).
- 941년(태조 24) : [高麗] 天授 24. 이해에 大相 王申一을 後晉에 보내 方物을 바침(史2/節要1). [中國] 後晉 天福 6. 5. 一頃 高麗가 다시 廣評侍郎 某를 보내와 邑(五代會要30高麗). 6. 17(丙午) 高麗國王 王建에게 開府儀同三司・檢校太・食邑 1萬戶를 더해줌(舊五代史79晉書5高祖紀5). 8. 27(甲寅) 光祿卿 張澄・國子博士 謝攀을 高麗에 보내 冊禮를 行하게 함(舊五代史80晉書6高祖紀6). 8. 一制를 내려 大義軍使・特進檢校太保・使持節玄菟州都督・上柱國・高麗王 王建을 開府儀同三司・檢校太師・依前使持節玄菟州都督・充大義軍使・食邑一萬戶・食實封一千戶・高麗國王으로 冊封하고, 光祿卿 張澄・國子博士 謝攀을 파견하여 冊命을 전하게 함(冊府元龜965外臣部10冊封3/五代會要30高麗).³⁸⁾
- 942년(태조 25) : [高麗] 天授 25. 10. 一契丹이 使臣을 보내와 駱駝 50匹을 전함(史2/節要1/樸翁稗說前集1). [中國] 閩 永隆 4. 이해에 第5代王 王延羲(王曦. 939-944 在位)에 의해 만들어진 福州 管內的 懷安慶城寺에 高麗銅佛 3개, 石筍 그리고 小木塔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高麗가 閩에 國信物로 보낸 것이라고 함(淳熙三山志33寺觀類1懷安慶城寺). [日本] 天慶 5. 11. 15 出雲國司가 新羅[高麗]舟 7艘가 隱岐國에 寄着했다는 것을 보고함(日本紀略).
- 943년(태조 26 : 惠宗 卽位) : [高麗] 天授 26. 4. 一太祖가 大匡 朴述熙를 불러 『訓要十條』를 전함. 4條에 高麗는 唐의 文物・禮樂을 遵用하고 있지만 반드시

38) 『책부원귀』에는 5월에 太祖 王建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8월에 사신을 파견하여 冊命을 전하게 하였다고 하지만, 『오대회요』에는 8월 이전에 고려의 사신이 도착하니 고려왕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사신을 파견하였다고 한다. 각종 자료를 통해볼 때 5월에 고려의 사신이 도착하자 6월에 고려왕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이어서 8월에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同一하게 할 필요는 없고, 禽獸의 國家인 契丹의 衣冠制度를 본받지 말라고 함(史2/節要1). [中國] 後晉 天福 8. 11. 27(辛丑) 高麗가 廣評侍郎 金仁逢을 보내와 朝貢함(舊五代史82晉書8少帝紀2/新五代史9晉本紀9出帝). 12. 10(甲寅)³⁹⁾ 高麗가 다시 王子太相 王申一等을 보내와 貢物을 바침(新五代史9晉本紀9出帝/冊府元龜972外臣部17朝貢5/五代會要30高麗). 閩, 永隆 5 : 天德 1, 5. —이보다 먼저 閩王 王禕의 在位時期(935—939)에 新羅가 使臣을 보내 寶劍을 바치자 宰相(同平章事) 王俛이 不忠不孝子를 斬하라고 建議한 적이 있었음. 이때 新羅가 다시 寶劍을 바치자(新羅復獻劍)⁴⁰⁾ 閩王 王延義(王義)가 이를 가지고서 이미 죽은 王俛의 屍身을 斬함(新五代史68閩世家8王審知/資治通鑑283後晉紀4齊王上天福8.5. 一條/十國春秋96閩7王俛).

- 944년(혜종 1) : [高麗] 이해에 廣評侍郎 韓玄珪 · 禮賓卿 金廉을 晉에 보내 王位繼承을 通告하고, 契丹을 破했음을 賀禮함(史2/節要2). [中國] 後晉 天福 7 : 開運 1, 1. —入朝使 王子太相 · 守倉部令 · 上柱國 · 賜紫金魚袋 王申一에게 檢校尙書右僕射를, 正朝 · 守廣評侍郎 · 柱國 · 丹金魚袋 柳迥訓에게 檢校禮部尙書를, 守廣評郎中 韓李康에게 試衛尉少衛卿을, 守廣評郎中 朴元信에게 試太府少卿을, 守兵部主事 韋安에게 試將作監主簿를 除授함. 또 進奉賀登極使 正朝 · 前守廣評侍郎 · 柱國 · 丹金魚袋 金仁逢에게 檢校工部尙書를, 副使 禮賓卿 · 柱國 · 丹金魚袋 金裕可에게 試大府卿을, 判官 兵部郎中 張規可에게 試衛尉少卿을 除授함(五代會要30高麗).
- 945년(혜종 2 : 定宗 卽位) 乙巳 : [高麗] 이해에 後晉이 光祿卿 范匡政 · 太子洗馬 張季凝을 보내와 王을 冊封하여 使持節 菟州都督⁴¹⁾ · 上柱國 · 充大義軍使 · 高麗國王으로 삼음. 또 勅書를 내려 高麗가 晉에 바친 각종 物品을 受領했음을 通報하고 각종 下賜品을 보내옴(史2/節要2). [中國] 後晉 開運 2, 10월 이전에 高麗國王 王武(惠宗)가 죽고 王堯(定宗)가 즉위한 것이 報告됨(五代會要30高麗/新五代史74四夷附錄3高麗).⁴²⁾ 10. 14(丁丑) 高麗가 廣評侍郎 韓玄

39) 『책부원귀』에는 9월로 되어 있다.

40) 『신오대사』에는 '新羅가 다시 寶劍을 바치자[新羅復獻劍]'로 되어 있으나, 新羅는 이미 滅亡하였다. 이에 비해 『자치통감』에는 '다시 劍을 바치는 者가 있어[復有獻劍者]'로 되어 있는데, 後者が 옳을 것이다.

41) 『고려사』에는 첫 글자인 使가 탈락되어 있다.

42) 『책부원귀』 966, 外臣部 11, 繼襲에는 '晉開運二年 建卒 子武嗣'로, 『五代會要』에는 '其國主王建卒 其子武嗣位'로, 『신오대사』 74, 四夷附錄 3, 高麗에는 '開運二年 建卒

珪·前禮賓卿 金廉 등 18人を 보내와 貢物을 바침(舊五代史84晉書10少帝紀4/新五代史9晉本紀9出帝/冊府元龜972外臣部17朝貢5/五代會要30高麗). 11. 5(戊戌) 이보다 먼저 王武(惠宗)가 崩御하여 弟 堯가 스스로 權知國事를 稱하면서 表를 올려 喪을 報告하자, 이날 堯를 檢校太保·使持節·玄菟州都督·充大義軍使로 삼아 高麗國王으로 冊封하고 通事舍人 郭仁遇를 使臣으로 파견함(舊五代史84晉書10少帝紀4/新五代史9晉本紀9出帝/資治通鑑285後晉紀6齊王開運2.10. -條). 이 시기 이전인 後晉 高祖(936-942 在位) 때에 胡僧 襜囉가 高祖에게 高麗를 끌어 들여 契丹을 攻擊할 것을 建議한 적이 있는데, 이때 郭仁遇가 高麗를 타일러 契丹을 攻擊하게 하려 하였으나 高麗의 兵力이 극히 약하여 襜囉의 말이 誇張된 것임을 認知함(資治通鑑285後晉紀6齊王開運2.10.-條/樸翁稗說前集 1). 12. 18(庚辰) 權知高麗國事 王堯(定宗)를 特進檢校太保·使持節玄菟州都督·上柱國·充大義軍事兼御史大夫·高麗國王으로 除授하고 光祿卿 范光政·太子洗馬 張季凝을 파견하여 冊命을 전하게 함(舊五代史84晉書10少帝紀4/冊府元龜965外臣部10冊封3/五代會要30高麗).

- 946년(정종 1) : [高麗] 이해에 眞觀禪師 釋超(912-964)가 歸國함(智谷寺眞觀禪師悟空塔碑).
- 947년(정종 2) : [高麗] 가을(秋)에 光軍司를 설치하고 光軍 30만을 뽑아 契丹에 대비함. 이는 賓貢進士로 後晉에 遊學하였던 崔光胤이⁴³⁾ 契丹에 捕虜가 되어 官僚로 在職하면서 契丹의 侵入을 傳한 結果임(節要2/史92崔彦擣·77百官2光軍司·81兵1兵制五軍). [中國] 吳越 開運(後晉) 4, 이해에 고려 출신의 승려 眞覺大師 靈照(870-947)가 入寂함(咸淳臨安志70人物11方外僧靈照/宋高僧傳13習禪篇3-6晉水興永安院善靜傳靈照/五燈會元7青原下六世雪峰存禪師法嗣·8青原下七世龍華照禪師法嗣/祖堂集11齊雲和尚/景德傳燈錄18吉州青原山行思禪師第六世福州雪峯義存禪師法嗣/十國春秋89吳越13僧靈照).
- 948년(정종 3) : [高麗] 9. -東女眞의 大匡 蘇無蓋 등이 와서 馬 700匹과 方物을 바침(史2). 9. - 처음으로 後漢의 年號인 乾祐를 사용함(史2·86年表1/節

子武立'으로 되어 있으나 잘못이고, 그 이하의 자료에도 王武(惠宗)로 되어 있으나 王堯(定宗)의 잘못이다. 또 『책부원귀』 966, 外臣部 11, 繼襲에는 '漢乾祐末 武卒 子昭立'으로, 『신오대사』 74, 四夷附錄 3, 高麗에 '乾祐四年 武卒 子昭立'으로 되어 있으나, 이해는 951년(광종 2, 光德 2)이므로 역시 잘못이다.

43) 崔光胤이 後晉에 들어간 時期는 알 수 없으나, 그가 940년(태조 23) 7월 이후에 王命을 받들어 「興法寺眞空大師塔碑」를 集字하였음을 통해 볼 때 이때 이후일 것이다.

要2).

- 949년(정종 4 : 光宗 卽位) : [高麗] 관련기사 없음. [中國] 後漢 乾祐 2. 이해에 王堯(定宗)가 죽고 그의 弟 王昭(光宗)가 卽位한 것이 報告됨(五代會要30高麗).⁴⁴⁾
- 950년(광종 1) : [高麗] 光德 1. 이해에 光德이라는 年號를 사용함(史2·86年表1).
- 951년(광종 2) : [高麗] 光德 2, 12. - 처음으로 後周의 年號인 廣順을 사용함(史2·86年表1/節要2).
- 952년(광종 3) : [高麗] 이해에 廣評侍郎 徐逢을 周에 보내 方物을 바침(史2/節要2). [中國] 後周 廣順 2, 1. 13(庚午) 高麗權知國事 王昭(光宗)가 廣評侍郎 徐逢 等 97人을 보내와 貢物을 바침(舊五代史112周書3太祖紀3/新五代史11周本紀11太祖/冊府元龜972外臣部17朝貢5/五代會要30高麗).⁴⁵⁾ 2. 7(癸巳) 權監高麗國事 王昭(光宗)를 特進檢校太保·使特節玄菟州都督·上柱國·充大義軍使·高麗王으로 除授하고, 衛尉卿 劉暉·通事舍人 顧彥浦를 보내어 冊命을 전하게 함. 冊命使 劉暉가 途中에 죽고 副使 顧彥浦가 바다에서 溺死함(舊五代史112周書3太祖紀3/冊府元龜965外臣部10冊封3/五代會要30高麗).⁴⁶⁾ 4. 9(甲午) 高麗國冊使 衛尉卿 劉暉가 郟州에서 죽음(61歲)(舊五代史112周書3太祖紀3·131周書22劉暉).⁴⁷⁾ 7. - 高麗의 僧侶 思泰가 方物을 바침(冊府元龜972外臣部17朝貢5). 9. 12(乙丑) 다시 太僕少卿 王演을 借衛尉卿에 任命하여 高麗國冊禮使로 삼고 右衛率府 呂繼斌을 借將作少監으로 임명하여 副使로 삼음(新五代史11周本紀11太祖/冊府元龜965外臣部10冊封3/五代會要30高麗). 10. - 淮南이 高麗使臣 陳參 等を 護送하여 宮闕에 보내오니 有司에 勅을 내려 酒食·衣服을 下賜하게 함(冊府元龜980外臣部25通好). [日本] 天曆 6. 이해에 新羅國(高麗) 照明王의 皇后인 大稱皇后가 長谷寺에 33개의 寶物을 寄贈함(長谷寺靈驗記上12新羅國照明王后遁三難送寶物事/今昔物語集16新羅后蒙國王咎得長谷觀音助語/宇治拾遺物語14新羅后金楊事).
- 953년(광종 4) : [高麗] 이해에 後周가 衛尉卿 王演·將作少監 呂繼斌을 보내와

44) 『오대회요』에는 '漢乾祐末 王武死 其子王昭代立'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人名 및 年代 整理[繫年]에 잘못이 있다.

45) 『오대회요』에는 廣順 1년(951)으로 되어 있으나, 2년(952)이 옳을 것이다.

46) 위와 같음.

47) 그의 列傳에는 3월 23일에 죽었다고 되어 있고, 『太平廣記』에는 吳越에 使臣으로 派遣되어 郟州 郵亭에서 卒하였다고 되어 있다.

- 王을 特進檢校大保·使持節玄菟州都督·充大義軍使兼御史大夫·高麗國王으로 삼음(史2).
- 954년(광종 5) : [高麗] 이해에⁴⁸⁾ 圓空國師 智宗이 吳越國 永明寺의 延壽禪師에게 나아가 佛法을 배움(圓空國師勝妙塔碑). [中國] 後周 顯德 1. 10. -高麗가 王子大相 王融을 보내와 方物을 바침(冊府元龜972外臣部17朝貢5/五代會要30高麗).⁴⁹⁾ [日本] 天曆 8. 1. 25 新羅(高麗)가 攻擊하려한다는 風聞이 있어 藤原朝忠을 大宰大貳로 任命함(吉記治承5.3.6條).
 - 955년(광종 6) : [高麗] 이해에 大相 王融을 後周에 보내 方物을 바치게 하고, 廣評侍郎 荀質로 하여금 卽位를 賀禮하게 함(史2/節要2). [中國] 後周 顯德 2. 10. 14(戊寅) 高麗가 王子大相 王融을 보내와 朝貢함(舊五代史115周書6世宗紀2/新五代史12周本紀12世宗). 11. 5(己亥) 高麗가 再次(復) 廣評侍郎 荀質을 보내어 方物을 바치며 登極을 賀禮하자 特進檢校太尉·使持節玄菟州都督·大義軍節度使·上柱國·高麗國王 王昭(光宗)에게 制를 내려 開府儀同三司·檢校太尉·依前使持節玄菟州諸軍事·行玄菟州都督·充大義軍使·高麗國王로 除授하고 勳職은 以前の 것과 같이함(勳如故)(舊五代史115周書6世宗紀2/冊府元龜965外臣部10冊封3·972外臣部17朝貢5/五代會要30高麗).⁵⁰⁾
 - 956년(광종 7) : [高麗] 이해에 後周가 將作監 薛文遇를 보내와 王을 加冊하여 開府儀同三司·檢校太師로⁵¹⁾ 삼자, 百官의 衣冠을 中國制度에 따르게 함. 前節度巡官·壯士郎·大理評事(使) 雙冀가 薛文遇를 따라 왔다가 疾病으로 殘留함(史2·93雙冀/節要2).
 - 957년(광종 8) : [高麗] 관련기사 없음.
 - 958년(광종 9) : [高麗] 이해에 後周가 尙書水部員外郎 韓彥卿·尙輦奉御 金彥英을 보내와 比단 數千匹을 가지고서 銅과 交易하게 함(史2). [中國] 顯德 5. 7. 6(乙酉)⁵²⁾ 尙書水部員外郎 韓彥卿·尙輦奉御 金彥英(高麗人, 東夷人 出身)

48) 『圓空國師勝妙塔碑』에는 光宗 6년으로 되어 있으나, 고려시대에는 卽位年 稱元法을 사용하였기에 954년(광종 5)로 받아들였다.

49) 『오대회요』에는 顯德 3년(956)으로 되어 있으나 顯德 1년(954)의 잘못으로 판단된다.

50) 『오대회요』에는 荀質이 到着한 年月이 表記되어 있지 않고, 같은 해 12월에 王昭(光宗)를 '開府儀同三司檢校太師高麗國王'으로 冊封되었다고 되어 있다.

51) 중국측의 자료에는 檢校太尉로 되어 있는 점을 보아 고려측의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추측된다.

52) 『四庫全書』 본의 『오대회요』에는 6월로 되어 있다.

을 고려에 파견하여 銅을 구입하여 鑄錢을 하도록 함(新五代史12周本紀12世宗·74四夷附錄3高麗/五代會要30高麗). 이때 韓彦卿이 歸國하여 見聞記인『博學記』(『高麗博學記』)를 지어 고려의 事情에 대해 300餘事를 기록함(淸異錄上天文迷空步障·藥草創刀圭·下器具平一公/說郛120).

- 959년(광종 10) : [高麗] 봄[春]에 佐丞 王兢·佐尹 皇甫魏光을 後周에 보내 名馬·織成衣襖·弓劍을 바침(史2/節要2). 가을[秋]에 使臣을 後周에 보내 『別序孝經』 1卷·『越王孝經新義』 8卷 등을 바침(史2). 後周가 左驍衛大將軍 戴交를 보내옴(史2/節要2). 겨울[冬]에 使臣을 後周에 보내 銅 5萬斤·紫·白水精各 2千顆를 바침(史2). 이해에 後周의 侍御·淸州守 雙哲(雙冀의 父)이 回禮使 王兢을 따라오자 佐丞으로 삼음(史2·93雙冀/節要2). [中國] 後周 顯德 6. 1. 6(壬子) 高麗國王 王昭(光宗)가 使臣 王子佐丞 王兢·佐尹 皇甫魏光 등을 보내와 名馬 및 織成衣襖·弓劍 등을 바치자 王兢 等에게 龍衣·銀帶器 등을 차이가 있게 下賜함(舊五代史119周書10世宗紀6/新五代史12周本紀12世宗/冊府元龜972外臣部17朝貢5·976外臣部20褒異3/五代會要30高麗). 7. 14(丁巳) 高麗人[東夷人] 出身의 尙輩奉御 金彥英이 1年前에 高麗에 파견되어 高麗王에게 稱臣하였던 理由로 被罪됨(舊五代史120周書11恭帝紀). 8. 29(壬寅) 高麗가 使臣을 보내와 朝貢하고 兼하여 『別序孝經』 1卷·『越王孝經新義』 8卷 등을 바침(舊五代史120周書11恭帝紀/新五代史12周本紀恭帝·74四夷附錄3高麗/冊府元龜972外臣部17朝貢5/五代會要30高麗). 9. 13(乙卯) 高麗國王 王昭(光宗)에게 檢校太師·食邑三千戶를 더하여 줌(舊五代史120周書11恭帝紀/冊府元龜965外臣部10冊封3). 9. 24(丙寅) 左驍衛大將軍 戴交를 高麗에 使臣으로 派遣함(新五代史12周本紀12恭帝). 11. 一高麗가 다시 使臣을 보내와 銅 5萬斤·紫·白水精各 2,000顆를 바침(冊府元龜972外臣部17朝貢5/新五代史12周本紀12恭帝·74四夷附錄3高麗/舊五代史138外國列傳2高麗/五代會要30高麗/白孔六帖6銅/錦繡萬花谷後集31錢銅). 南唐 顯德(宋) 6, 이해에 高麗에 使臣으로 파견된 如京使 章僚가 見聞記인 『海外使程廣記』 3卷을 著述함(直齋書錄解題8海外使程廣記三卷/程氏演繁露1服匿·刁斗·斯羅·10犬戎雞林/演繁露續集1高麗境望).⁵³⁾
- 960년(광종 11) : [高麗] 峻豐 1, 3. 一 百官의 公服을 정하고, 開京을 皇都, 西京을 西都로 이름을 바꿈(史2·56地理1王京開城府·58地理3北界西京·72輿服

53) 『海外使程廣記』에는 保大(943-958) 초에 徐弼(高麗人?)이 使臣으로 派遣되었을 때의 事實이 引用되어 있다고 한다(『演繁露』續集1, 高麗境望).

- 1冠服公服/節要2). 이해에 年號를 峻豊으로 定함.⁵⁴⁾ [中國] 吳越 乾隆(宋) 1, 이해에 錢弘俶이 고려 및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이를 구하려고 함(宋高僧傳 7義寂傳/佛祖統紀8十五祖螺溪淨光尊者大法師·10諸祖旁出世家5-2淨光法師(義寂)旁出世家吳越忠懿王錢弘俶·法師諦觀·23歷代傳教表第9/禪林僧寶傳7天台韶國師/五燈會元10天台山德韶國師/景德傳燈錄25天台山德韶國師/皇朝類苑78/郡齋讀書志後志2釋書類法華言句二十卷/釋門正統2山門記主荊溪尊者世家義寂/乾道四明圖經11智覺禪師眞贊并序./浙江通志200仙釋3台州府義寂/十國春秋89僧義寂).
- 961년(광종 12) : [高麗] 峻豊 2, 관련기사 없음. [中國] 宋 建隆 2, 3. -高麗王 昭(光宗)에게 衣帶·鞍馬를 下賜함(玉海154朝貢錫予外夷). 吳越 乾隆(宋) 2, 이해에 高麗가 僧侶 諦觀을 吳越에 파견하여 각종 經典을 전하여 江南지역에서의 天台敎의 中興에 貢獻하였음(佛祖統紀10吳越忠懿王錢弘俶·法師諦觀·23歷代傳教表第9·52歷代會要志19-2諸國朝貢/皇朝類苑78/郡齋讀書志後志2釋書類法華言句二十卷). 이해에 高麗僧侶 圓空國師 智宗이 國淸寺의 淨光大師 義寂을 만남(圓空國師勝妙塔碑).
 - 962년(광종 13) : [高麗] 峻豊 3, 겨울[冬]에 廣評侍郎 李興祐 등을 宋에 보내 方物을 바침(史2/節要2). [中國] 宋 乾隆 3, 11. 22(丙子)55) (高麗王) 昭(光宗)가 廣評侍郎 李興祐·副使 李勵希·判官 李彬 등을 보내와 供物을 바침(來貢)(宋史1·487高麗/續資治通鑑長編3/宋會要輯稿199蕃夷7歷代朝貢/玉海154朝貢獻方物建隆高麗來貢·錫予外夷/寶慶四明志6敍賦下市舶/群書考索後集64財賦門貢獻四夷方貢/皇朝編年綱目備要1).
 - 963년(광종 14) : [高麗] 12. -처음으로 宋의 年號인 乾德을 사용함(史2·86年表1/節要2). 이해에 宋이 冊命使 時贊을 보내왔는데, 風波를 만나 溺死한 者가 90餘人임(史2/節要2). [中國] 宋 建隆 4: 乾德 1, 4. -制를 내려 高麗國王 王昭(光宗)를 推誠順化保義功臣으로 冊封함(宋史487高麗/寶慶四明志6敍賦下市舶). 9. 5(甲寅) 登州가 宋의 使臣團 時贊 등이 高麗에 가다가 風波를 만나 90餘人이 溺死하고, 時贊이 간신히 免하여 돌아왔다고 報告하자 慰勞하게 함(續資治通鑑長編4/宋史487高麗).⁵⁶⁾ 이해에 高麗가 來貢해옴(元豐類藁31高麗世次).

54) 이해에 年號를 峻豊으로 定한 것은 「龍頭寺鐵幢竿記」에 962년(壬戌)을 峻豊 3年으로 記載하고 있는 것을 통해 類推하였다.

55) 『宋會要輯稿』에는 12월 23일로, 『송사』 487, 高麗에는 10월로 되어 있다.

56) 『속자치통감장편』·『송사』에는 時贊이 高麗使臣團으로 되어 있으나 잘못이다. 또 『송사』에는 溺死者가 70餘人으로 되어 있다.

- 964년(광종 15) : [高麗] 관련기사 없음.
- 965년(광종 16) : [高麗] 2. 一大丞·內奉令 王輅를 宋에 보내어 方物을 바치자 太祖가 王輅를 尙書左僕射·食實封3百戶로 삼음(史2/節要2). [中國] 宋 乾德 3, 1. 13(乙酉) 高麗國王이 使臣을 보내와 錦罽·刀劍 등의 朝貢을 바침(宋史 2/玉海154朝貢獻方物建隆高麗來貢·錫予外夷).
- 966년(광종 17) : [高麗] 관련기사 없음.
- 967년(광종 18) : [高麗] 관련기사 없음.
- 968년(광종 19) : [高麗] 3. 一高麗의 寂然國師 英俊(932-1014)이 吳越에 건너 감(靈巖寺寂然國師慈光塔碑). [中國] 宋 乾德 6 : 開寶 1, 이해에 高麗가 來貢해 옴(元豐類藁31高麗世次). 吳越 開寶(宋) 1, 3. 一高麗僧 英俊이 永明延壽(904-975)에게 佛法을 배움(靈巖寺寂然國師慈光塔碑). 이해 年末에 圓空國師 智宗이 國淸寺의 傳敎院에서 大定慧論·法華經을 講說함(圓空國師勝妙塔碑).
- 969년(광종 20) : [高麗] 관련기사 없음.
- 970년(광종 21) : [高麗] 이해에 圓空國師 智宗이 宋에서 歸國함(圓空國師勝妙塔碑). 이해에 宋의 泉州人 蔡仁範이 泉州의 持禮使 某를 따라오자 禮賓省 郎中에 任命함(蔡仁範墓誌銘).⁵⁷⁾
- 971년(광종 22) : [高麗] 관련기사 없음.
- 972년(광종 23) : [高麗] 이해에 內議侍郎 徐熙 등을 宋에 보내 方物을 바침(史 2·94徐熙). 寂然國師 英俊(932-1014)이 吳越에서 歸國하여 王의 優待를 받음(靈巖寺寂然國師慈光塔碑). [中國] 宋 開寶 5, 8. 3(庚寅) 高麗國王 王昭(光宗)가 使臣을 보내와 方物을 바침. 太祖가 王(光宗)에게 食邑을 加하여 推誠順化守節保義功臣號를 내려주고, 進奉使 內議侍郎 徐熙에게 檢校兵部尙書를, 副使 內奉卿 崔業에게 檢校司農卿兼御史大夫를, 判官 廣評侍郎 康禮에게 檢校小府小監를,⁵⁸⁾ 錄事 廣評員外郎 劉隱에게 檢校尙書金部郎中の 官職을 각각 授함(宋史 3·487高麗/史94徐熙/元豐類藁31高麗世次/玉海154朝貢獻方物建隆高麗來貢). [日本] 天祿 3, 9. 23 大宰府가 고려의 南京府使 威吉兢이 牒을 가지고 對馬島에 도착한 것을 보고하였고, 이것이 다음달 7일 일본 조정에 전해짐(日本紀略

57) 「蔡仁範墓誌銘」은 金龍善, 『高麗墓誌銘集成』 第4版, 한림대출판부, 2006에 수록되어 있다. 蔡仁範은 蔡忠順의 父로 推定되는데(김용선, 『역주고려묘지명집성』 상, p.5), 이는 1005년(목종 8) 宋의 溫州女士(閩人) 周衍가 來投하자 蔡忠順이 建議하여 禮賓注簿로 임명한 점을 통해서도 개연성이 있을 것이다.

58) 『송사』 487, 高麗에는 試少府少監으로 되어 있다.

/親信卿記). 10. 15 大宰府가 고려의 金海府使 李純達이 침을 가지고 대마도에 도착한 것을 보고함(親信卿記). 10. 20 일본조정에서 政務의 評議(陣定)가 이루어져 고려의 침에 대해 의논함(百練抄).

- 973년(광종 24) : [高麗] 관련기사 없음.
- 974년(광종 25) : [高麗] 관련기사 없음. [日本] 天延 2, 閏10. 30 日本 朝廷의 高麗國交易使(高麗貨物使) 藏人所出納 國雅(혹은 雅章)가 對馬島에 파견되어 고려의 産物을 구입해 감(日本紀略/親信卿記).
- 975년(광종 26 : 景宗 卽位) : [高麗] 관련기사 없음. [中國] 南唐 開寶(宋) 8, 이해에 新羅人 裴某가 蘇州刺史 龔慎儀·監軍 軫鎬에게 金陵에서 장차 일어날 國難(南唐의 滅亡)을 豫言함(景定建康志50拾遺裴長史/至大金陵新志14撫遺)·高麗 光宗의 在位時期(949-975)에 永明延壽(904-975)에게 光宗이 使臣을 파견하여 弟子의 禮를 표하면서 金線織成袈裟·紫水晶數珠 등을 증정하는 동시에 圓空國師 智宗(930-1018)·寂然國師 英俊(932-1014)을 한 36人的 승려를 파견하여 修學하게 함(咸淳臨安志70人物11方外僧延壽/夢梁錄17歷代方外僧/禪林僧寶傳9永明智覺禪師/五燈會元10青原下十世天台韶國師法嗣/釋門正統3弟子志青原下分曹洞雲門法眼三宗·8護法外傳延壽/景德傳燈錄26天台山德韶國師法嗣杭州永明寺延壽禪師/佛祖統紀26淨土立教志12-1法師延壽/52歷代會要志19-2諸國朝貢/武林西湖高僧事略五代智覺禪師/十國春秋89吳越13僧延壽/靈巖寺寂然國師慈光塔碑/圓空國師勝妙塔碑)·光宗의 在位時期(949-975)에 張晉公이 使臣으로 江南에 派遣되었을 때, 江南人이 그곳에 漂流되어 온 瑟의 밑바닥에 적혀져 있는 寒松亭의 歌詞의 뜻을 묻자 張晉公이 시를 지어 노래의 뜻을 풀이함(史71樂2俗樂寒松亭).
- 976년(경종 1) : [高麗] 11. - 宋이 左司禦副率 于延超·司農寺丞 徐昭文을 보내와 王을 冊封하여 光祿大夫·檢校太傅·使持節玄菟州諸軍事·玄菟州都督·大順軍事·食邑3千戶로 삼음(史2/節要2).⁵⁹⁾ 11. - 使臣을 宋에 보내어 宋 太宗의 卽位를 賀禮함(史2/節要2). 이해에 金行成을 宋에 보내어 國子監에 入學하게 함(史2·74選舉2科目2制科/節要2). [中國] 宋 開寶 9 : 太平興國 1, 9. 4(丁卯) 高麗國王 王昭(光宗)가 卒하고 아들 佺가 國事를 臨時로 맡았다고(權領)

59) 『宋大詔令集』에는 太傅가三公인 太師·太傅·太保 중의 3번째 序列인 太保로 되어 있는데, 979년(太平興國 3, 경종 3) 12월 宋이 景宗을 檢校太傅로 任命하는 동시에 食邑 1千戶를 더하고 있음을 보아 太保의 잘못일 것이다.

- 함(續資治通鑑長編17/皇朝編年綱目備要2). 9. 7(庚午) 權高麗國事 王佺(景宗)가 使臣 趙尊禮를 보내와 鬪錦·漆甲 등의 方物을 바치고, 冊命을 要請함(續資治通鑑長編17/宋史3·487高麗/玉海154朝貢獻方物建隆高麗來貢·錫予外夷/寶慶四明志6敍賦下市舶). 11. 13(乙亥) 權知高麗國事 王佺을 光祿大夫·檢校太保·持節元菟州都督·天順軍使·封高麗國王·食邑三千戶로 삼음(宋大詔令集237政事90四裔10高麗王佺封高麗國王制/宋史4·487高麗/續資治通鑑長編17:永樂大典12,3036). 11. 30(壬辰) 左司禦副率 于延超·司農寺丞 徐昭文을 使臣으로 高麗에 보내 冊命을 전하게 함(續資治通鑑長編17/宋史487高麗/玉海154朝貢獻方物建隆高麗來貢). 이해에 高麗國人 金行成이 처음으로 國子監에 入學함(續資治通鑑長編17/宋史487高麗/玉海154朝貢獻方物建隆高麗來貢·錫予外夷).
- 977년(경종 2) : [高麗] 이해에 使臣을⁶⁰⁾ 宋에 보내어 良馬와 甲兵을 바침(史2/節要2). [中國] 宋 太平興國 2. 12. 25(辛巳) 高麗國王이 王子 元輔 某를 보내와 馬를 바치고 即位를 賀禮함(宋史4·487高麗/續資治通鑑長編18/元豐類藁31高麗世次/群書考索後集64財賦門貢獻四夷方貢/玉海154朝貢獻方物建隆高麗來貢).⁶¹⁾ 이해에 高麗國人 金行成이 進士第에 選拔됨(宋史487高麗/玉海154朝貢錫予外夷/史74選舉2科目2制科).
 - 978년(경종 3) : [高麗] 4. -宋이 太子中允 張洎를 보내어 來聘함(史2/節要2/事實類苑60廣知博識見龍:皇朝類苑58). [中國] 宋 太平興國 3. 10. 1(癸丑)⁶²⁾ 高麗國王이 使臣을 보내와 兵器 등의 貢物을 바침(宋史4·487高麗/續資治通鑑長編19/元豐類藁31高麗世次/群書考索後集64財賦門貢獻四夷方貢/玉海154朝貢獻方物建隆高麗來貢). 10. 16(戊辰) 宰相·親王 以下·契丹使·高麗使·諸州進奉使를 崇德殿에서 饗宴함(宋史72禮外國君長來朝). 12. 12(戊辰) 天順軍使·光祿大夫·檢校太保·持節元菟州都督·上柱國·高麗國王·食邑二千戶 王佺(景宗)를 檢校太傅에 任命하고 食邑一千戶를 더해 줌(宋大詔令集237政事90四裔10高麗高麗國王王佺檢校太傅加食邑制).
 - 979년(경종 4) : [高麗] 6. -宋이 供奉官·閤門祗候 王僕을 보내와 王을 侍中으로 삼고,⁶³⁾ 食邑一千戶를 加함(史2/節要2). 이해에 渤海人 數萬이 來投함(史

60) 『고려사』에는 '아들을 보내(遣子)'로, 『고려사절요』에는 '使臣을 보내(遣使)'로 되어 있고, 宋側의 資料에는 '王子(其子)元輔'로 되어 있다.

61) 『송사』에는 '王子(其子)元輔'로 되어 있으나, 元輔는 官等이므로 使臣의 이름을 알 수 없다. 또 『군서고색』에는 太平興國 3년(978)으로 되어 있으나 잘못이다.

62) 『속자치통감장편』과 『군서고색』에는 甲寅(2일)로 되어 있다.

- 2/節要2). [中國] 宋 太平興國 4, 1. 7(丁亥) 太子中允·直舍人院 張洎 및 著作佐郎·直史館 句中正을 高麗에 보내 北伐을 告하게 함(宋史4·267張洎·441句中正·487高麗/續資治通鑑長編20).⁶⁴⁾
- 980년(경종 5) : [高麗] 이해에 崔罕·王琳을 宋에 보내 國子監에 入學시킴(史74選舉2科目2制科). [中國] 宋 太平興國 5, 1. 5(庚辰) 供奉官·閤門祇候 王僎을 使臣으로 高麗에 보냄(續資治通鑑長編21/宋史487高麗).⁶⁵⁾ 6. 11(壬午)⁶⁶⁾ 高麗國王 佖(景宗)가 使臣을 보내와 貢物을 바침(宋史4·487高麗/續資治通鑑長編21/元豐類藁31高麗世次/玉海154朝貢獻方物建隆高麗來貢). 이해에 開寶年間(963-976)에 賓貢으로 國學에서 工夫하고(肄業) 있던 高麗 信州 永寧人 출신의 康戩이 進士第에 올라 大理評事가 됨(宋史487高麗天禧5年).
 - 981년(경종 6 : 成宗 卽位) : [高麗] 관련기사 없음. [中國] 宋 太平興國 6, 4. 19(丙戌) 高麗國이 使臣을 보내와 名馬·鬪錦 등의 朝貢을 바침(宋史4·487高麗/元豐類藁31高麗世次/群書考索後集64財賦門貢獻四夷方貢/玉海154朝貢獻方物建隆高麗來貢). 12. 一高麗國이 駢角弓·漆甲 등의 朝貢을 바침(玉海154朝貢獻方物建隆高麗來貢).⁶⁷⁾
 - 982년(성종 1) : [高麗] 이해에 侍郎 金旻을 宋에 보내어 嗣位함을 告함(史3/節要2). [中國] 宋 太平興國 7, 9. 25(癸丑) 權知高麗國王 治(成宗)가 使臣 金全을 보내와 貢物을 바치고, 그의 兄 佖(景宗)가 薨御했다고 報告하고 襲位를 要請함(續資治通鑑長編23/宋史487高麗/元豐類藁31高麗世次/群書考索後集64財賦門貢獻四夷方貢). 12. 21(戊寅) 權知高麗國王 治(成宗)를 光祿大夫·檢校太保·持節元菟州諸軍事·元菟州都督·充天順軍使·上柱國·食邑二千戶에 任命하고 高麗國王으로 冊封하고, 監察御史 李巨源·國子博士 孔維를⁶⁸⁾ 使臣으로 派遣함(宋大詔令集237政事90四裔10高麗王治拜官封高麗國王詔/續資治通鑑長編23/宋史4·431孔維·487高麗/元豐類藁31高麗世次/皇朝編年綱目備要3).

63) 『송대조령집』에는 檢校太傅로 되어 있다.

64) 『송사』 267, 張洎 및 권 487, 高麗에는 978년(太平興國 3)으로 되어 있다.

65) 『송사』 487, 高麗에는 979년(太平興國 4)으로 되어 있다.

66) 『속자치통감장편』에는 壬子로 되어 있는데, 이달에는 壬子가 없다. 그러므로 壬子는 『송사』의 내용대로 壬午(11일)일 것이다.

67) 이는 太平興國 7년(982) 9월 25일 金旻이 바친 貢物일 가능성이 있는데, 당시 1년에 2貢을 했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68) 처음에 副使로서 著作佐郎·直史館 單貽慶이 선발되었으나, 老母를 理由로 辭讓하자 孔維가 대신하여 임명되었다. 또 『송사』 487, 高麗에는 孔維가 禮記博士로 되어 있다.

- 983년(성종 2) : [高麗] 3. 22(戊寅) 宋이 大中大夫·光祿少卿 李巨原과 朝議大夫·將作少監 孔維를 보내와 王을 光祿大夫·檢校太保·使持節玄菟州諸軍事·玄菟州都督·充大順軍事·上柱國·食邑2千戶로 삼음(史3). 이때 高麗王 治가 孔維에게 禮에 대해 묻자, 孔維가 君臣父子之道·升降等威之序로 답하자 治가 기뻐하여 '이제 다시 中國의 孔子[夫子]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하였음(續資治通鑑長編 23/宋史4·431孔維·487高麗/皇朝編年綱目備要3). 5. 9(甲子) 博士 任老成이 宋으로부터 와서 『太廟堂圖』·『太廟堂記』 등을 바침(史3). [中國] 遼 統和 1, 10. 15(丁酉) 聖宗이 장차 高麗를 征伐하기 위해 東京留守 耶律末只가 總括하고 있던 兵馬를 閱兵함(遼史10). 10. 24(丙午) 高麗를 征伐하기[東討] 위해 宣徽使兼侍中 蒲頴 등에게 準備 命을 내림(遼史10).
 - 984년(성종 3) : [高麗] 이해에 刑官御事 李謙宜로 하여금 鴨綠江岸에 城을 쌓아 關城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女眞이 군사로써 이것을 막고 謙宜를 사로잡아 감(史3/節要2). 이해에 韓遂齡을 宋에 보내어 方物을 바치게 함(史3/節要3). [中國] 宋 太平興國 9 : 雍熙 1, 11. 6(壬子) 高麗國王이 使臣 韓遂齡을⁶⁹⁾ 보내와 朝貢을 바침. 이보다 먼저 女眞이 高麗가 契丹을 誘導하여 그들을 侵犯하였다고 宋에 보고한 일이 있는데, 이때 太宗이 韓遂齡에게 事實 與否를 물음(宋史4·487高麗/元豐類彙31高麗世次/群書考索後集64財賦門貢獻四夷方貢). 12. -高麗가 麗錦龍鳳袍·宮甲 등을 바침(玉海154朝貢獻方物建隆高麗來貢).⁷⁰⁾ [日本] 永觀 2, 4. 3 高麗船이 筑前國 早良郡에 도착하자, 21일 이에 대해 의논함(小記目錄異朝事).
- ※ 이하 985년(성종 4)에서 1009년(목종 12 : 현종 즉위)까지는 논문의 분량으로 인해 생략함.

이상은 한·중·일 3국의 자료를 수습하여 소략한 『고려사』 世家編 초기 기사(태조~목종)의 대외관계 기사를 복원하려고 한 것이지만, 이 역시 기록의 공백을 완전히 채우지는 못하였다. 이 글에서 다룬 김토의 대상 시기가 92년인데, 『고려사』 世家에서는 35년에 걸쳐 공백으로 남겨져 있었으나, 이에

69) 『군서고색』에는 韓延齡으로 되어 있다.

70) 이는 11월 6일 韓遂齡이 바친 것으로 추측되며 『옥해』의 12월이 11월의 잘못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서 보완한 것은 23년이고, 957년(광종 9), 960년, 964년, 966년, 967년, 969년, 971년, 973년, 975년(광종 26), 987년(성종 6), 1001년(목종 4), 1006년(목종 9) 등 12년의 기사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들 시기에 대외관계 기사가 찾아지지 않는 것을 무엇보다 七代實錄의 消盡으로 인해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던 것이 주요인일 것이다. 이 점은 가장 공백이 많은 광종대의 경우 왕에 의해 수많은 승려를 강남에 파견되기도 하였고, 중국측의 자료에서 江南諸國 및 고려의 사신들이 왕래하였던 사례가 많이 찾아 짐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의 공백은 향후 墓誌銘·木簡 등을 위시한 각종 고고학적인 자료의 발굴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5. 맺음말 : 『고려사』 세가편의 대외관계 기사의 문제점

이상에서 『고려사』 세가에 수록되어 있는 초기기사 중에서 대외관계 기사를 정리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조감하였다. 이어서 대외관계 기사를 보완할 수 있는 한·중·일 3국의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발췌하여 고려초기의 대외관계 기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그 결과 『고려사』 세가에서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는 대외관계 기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수많은 자료를 발굴하였는데, 그 중 주목될 수 있는 성과로는 『고려사』에 거의 언급이 없는 5대10국 중에서 남중국에 위치한 吳越·南唐(齊)·閩 등과 고려왕조가 빈번하게 교섭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들을 추가한 점을 들 수 있다. 또 일본측의 자료를 통해 『고려사』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고자 한 고려측의 지속적인 외교정책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발굴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고려초기의 대외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고려사』 세가편의 대외관계 기사의 문제점을 간략히 정리하여 맺음말로 삼고자 한다.

조선왕조 초기에 편찬된 『고려사』의 주된 底本은 고려왕조 때에 만들어진 실록이었고, 이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통해 여러 자료들이 참조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들 참조 자료는 극히 몇 예를 제외하고는 資料名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志는 각종 官府에 소장되어 있었던 形止案과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편찬되었던 것 같다. 또 列傳은 고려후기의 이제현을 위시한 이곡·이색 등과 같은 극히 소수 인물들의 문집을 이용하여 편찬되었고, 당시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각종 碑文을 참조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世家編은 주로 실록의 내용을 刪削하여 轉載한 것으로 보이지만, 간혹 月建이나 日辰이 없이 ‘이해(是歲)’·‘이달(是月)’과 같이 표기하여 他資料를 참조했음을 암시하는 것도 있다.⁷¹⁾

그렇다면 『고려사』 세가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실록 이외의 他資料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자료는 어느 때에 이용되었는가는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고려 당대의 실록을 편찬할 때, 또는 조선왕조 초기에 『고려사』를 편찬할 때의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元末에 편찬된 『遼史』·『金史』·『宋史』의 3史와 明初에 편찬된 『元史』를 모두 참조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서에 수록되어 있는 고려왕조에 관련된 사실이 일부는 『고려사』에 반영되어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또 『資治通鑑』을 위시한 수많은 중국의 전적들이 수입되어 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내용이 이용된 흔적은 찾아지지 않으며, 만일 이용되었다면 초기의 대외관계 기사가 크게 소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71) 주로 外交·佛敎 등에 관련된 기사는 ‘是歲’의 표현이 없이 해당연도의 마지막에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是歲’의 字句가 缺落된 것이다. 이는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하는 중에서 『고려사』 세가2, 혜종 1년, 2년의 外交使節의 來往에 대한 기사가 그러하다.

이 점을 감안해 볼 때 『고려사』세가에 수록되어 있는 타자료를 이용한 내용은 고려 당대의 실록을 편찬할 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⁷²⁾

이상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서 『고려사』 세가편에 수록된 초기(태조~목종) 대외관계 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족한 소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① 『고려사』 세가편에 수록된 대외관계 기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기사가 소략한 것은 기본적으로 七代實錄의 消盡으로 인한 것이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黃周亮 등이 1013년(현종 4)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1034년(덕종 3)에 완성한 『七代實錄』(『七代事跡』)이 소략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② 조선왕조 초기에 『고려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여타의 실록과 마찬가지로 편년체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七代實錄』을 기전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록의 내용이 크게 刪削되었을 것이다. 또 기사들이 여러 編目에 분산되었기에 대외관계 기사가 世家編에서 누락되었고 967년(광종 18)과 같이 기사가 없는 해도 발생하였을 것이다.

③ 『고려사』가 여러 인물에 의해 分撰된 결과 934년(태조 17)의 渤海國의 世子 大光顯이 來投한 기사의 경우와 같이 『고려사』 年表와 『고려사절요』에서 925년(태조 8)에 來投하였다고 잘못 기술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④ 실록 이외의 타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추측되는 대외관계의 기사의 수록에서 '이해(是歲)'가 缺落되어 시기의 판정 및 내용에서 오류를 범한 것도 있다. 곧 986년(성종 5) 宋의 사신 韓國華의 경우와 같이 年度の 整理[繫年]에서 실패하였고,⁷³⁾ 927년(태조 10) 王逢規가 林彦을 後唐에 보내 朝貢한 것을 고려가 행한 것처럼 서술하기도 하였다. 또 같은 사실을 原資料와 비교

72) 이 점은 현재의 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고 향후 『고려사』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결정 지을 수 있을 것이다.

73) 이 점은 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고려사』 74, 選舉2, 科目2, 制科에는 '五年'의 앞에 '成宗'이 缺落되어 마치 景宗 5년처럼 보였다.

하였을 때 차이를 보이는 점도 없지 않다.

⑤ 『고려사』의 편찬자들은 어떤 사건을 수록한 후 이의 보충 설명을 위해서 전후의 사정을 보완하고 있다. 이의 예로서 태조 8년 9월의 渤海人의 來投에서 발해의 건국에서 멸망에 이르기까지 전후의 사실을 일괄 서술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서술방식에 의해 여러 사실이 압축되어 유사한 내용은 생략하게 되었던 것 같다.⁷⁴⁾

74) 그 한 예로 契丹에 童子 10人을 보내와 契丹國語를 배우게 한 것이 995년(성종14)과 996년의 2회에 걸쳐 행해졌으나 전자만 기록한 것을 들 수 있다.

Abstract

An Amendment to the Articles on the Foreign Relationship
of the 10th Century Koryo Dynasty

Chang, Dong-Ik

This essay is to amend the articles on the foreign relationship of the early Koryo dynasty in the 'Powerful Families' chapter of History of Koryo by examining other Korean, Chinese and Japanese literature of the same period. This amendment contains some new material showing that Koryo dynasty had relationship with some of the Ten Kingdoms such as Wuyue, Southern Tang and Min. This Essay also aims at to provide some essential materi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arly Koryo and Japan, which was not mentioned at all in History of Koryo. This essay shows that the articles written in the 'Powerful Families' chapter of History of Koryo have following problems ;

First, it is said that the briefness of the 'Powerful Families' chapter of History of Koryo is due to the loss of ChildaeSillok by a fire. However, we cannot exclude a possibility that the restored edition of ChildaeSillok itself had brief explanation on the foreign relationship.

Secondly, History of Koryo was written by transforming ChildaeSillok from the chronological system to the subjects system. In this process many of articles on the foreign relationship may had been either omitted or scattered into other chapters. This may explain why the 'Powerful Families' chapter of History of Koryo is so brief.

Thirdly, the 'Powerful Families' chapter of History of Koryo may had been based on other material beside ChildaeSillok. Many of error in contents and dates in the matter of the foreign relationship seem to have been due to misunderstanding these material. Many facts from

from these material may have been omitted in the 'Powerful Families' chapter of History of Koryo because of either similarity or difference between them and ChildaeSillok.

Key Word

Koryo Dynasty, China, Japan, the Articles on the Foreign Relationship, History of Korea, Short History of Korea, Literature Collection, Metal and Stone inscript letters, Chinese Documents, Japanese Documents, ChildaeSillok

- 논문투고일 : 2007.12.27. 심사시작일 : 2008.01.17. 심사완료일 : 2008.01.27.

